朝鮮日報 夕刊
六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本社定期刊行物◆
「朝鮮日報」(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金鶴香油 金鶴으로芳香하게

隴海線上街頭鎭의 四萬中央軍을空爆
我陸軍荒鷲隊의猛活躍

【○○基地五日發同盟】我空軍의 高橋隊는 五日午後二時 精銳를추려 大擧出動隴海線上街頭鎭南側一帶에 後退한 中央軍四萬의 密集團에 對하야 猛烈한 反覆爆擊을 敢行 다시 逃亡하는 敵을 追擊하야 徹底的으로 爆擊 이를 完全히 粉碎하엿다

【上海五日發同盟】五日午後七時○○에서 軍發表

一、敵은 昨今隴海及津浦方面의 作戰이 뜻과가티 되지안홈에 鑑하야 急遽武漢方面으로부터 兵力을 移動中이다

二、○○及○○에서 待機中이든 我陸軍飛行隊는 俄然五月四日午前四時부터 終日○○機의 全力을 擧하야 信陽、潁州、蕭縣、徐州의 交通要點에 對하야 繼續爆擊을 敢行、敵에 多大한 損害를 與하야 그輸送을 攪亂하고잇는中이다 此間 荒木、松本兩中尉는 戰死를 遂하엿다

阜寧에大激戰展開?
我部隊、敵前渡河決行

【上海五日發同盟】通州上陸以來 如皋、東台、鹽城과 江蘇中部地帶를三段跳로 北上한 飯塚、津田兩部隊는 鹽城에서 約七千의 敵을 擊退한 餘勢로서 乘勝長驅하야 四日射陽河左岸에 到達、敵은 對岸에 陣地를 構築하고我前進을 阻止하고저 猛烈한 銃火를 퍼부어왓스나 이를 무릅스고 五日未明 마침내 敵前渡河를決行하야 허둥지둥 退却하는 敵을 急追하야 江蘇北部의 交戰據點인 阜寧을 不過數里의 南方으로 바라보며 前進하야 各部隊의 將兵은 士氣益益旺盛한데 阜寧附近에는 數線에 亘하야 堅固한 敵陣이 配置되여잇슬뿐아니라 淮陰附近에 駐屯하고잇든 敵百十一師도 淮安城附近으로 移動한形跡이잇스므로 阜寧攻略까지에는 相當한 激戰이 展開될것으로 豫想된다

土匪의女頭目 歸順을申請

【上海六日發同盟】海賊을 父母로 장크中에서出生 海賊으로서 生長하야 十八歲의妙齡으로 六千名의 土匪의女頭目이되여 太湖周邊을 風靡하든 黃八妹(황팔매)는 今事變以來 事變의推移를注視하고잇든바 생각한끄테 部下와함께 自己의後半生을 바치겟다고 約一週間前 中華民國維新政府綏靖部에 提議하여왓다 綏靖部에서는 彼女의구든信念과 넘치는 熱情에 感動되여 그提議에 快諾을하게되엿다 彼女의 父親도 太湖濱邊地方에서 海賊의首魁로서 有名하엿든 故大保安四의 右腕이라고하든 部下의 딸로 일직부터 處女時代에 六千의 頭目으로 推戴되엿다 部下의 信望이 두텁고 二十八歲까지 十年間 太湖及 金山衛附近一帶를 勢力圈內로하야 勢力을펴고 잇섯고 二十八歲時 病으로因하야 頭目을 辭하고 部下를 解散하야 農業에 從事하엿다 今次事變이 勃發하자 彼女는 日本軍에 抵抗하려는態度가 보이지안코 망서리고잇든바 皇軍의 懇切한 宣撫工作에 크게 感激하야 再次部下를 糾合하야『日本軍에는 絶對反對치안코 維新政府에 服從하겟다』고 誓約하고 部下六千과 함께 歸順을 提議해온것이다

敗戰挽回次 蔣、空軍活動嚴命

【○○基地五日發同盟】當地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蔣介石은 北方戰線의敗戰을 挽回하기爲하야 空軍에게 積極的活動을 命하엿스므로 北方空軍司令陳棲霞는 去二日歸德으로와서 ○○方面의 空軍을 動員中이라고한다

病院機로假裝 軍需品輸送에利用

【新京五日發同盟】事變勃發以來 支那軍은 온갓 軍事施設에 赤十字旗를 揭揚코 마치 病院과가티 僞裝하고 皇軍의눈을 속여오든것이 夥多의 事實에依하야 證明되엿는바 當地에의 確報에依하면 敵은 去三月中旬某國으로부터 비·치크라프트三機또四月上旬에는 드라곤·라파이트三機를購入 이를赤十字의美名下에 漢口로 輸送하고또右飛行機는 모두白色으로 漆을하고 赤十字마-크를 附하야 病院機와가티 보이게하고 漢口香港廣州間의 軍需品輸送에 使用하고잇서 我方은 거듭하는支那側의 卑劣行爲에 非常히 憤慨하고잇다

李福和剿匪第一路總司令에任命

【北京五日發同盟】部下數萬과함께 我軍에歸順 各地에서 共匪討伐에效果를 收한 李福和는臨時政府治安部로부터 剿匪第一路總司令에任命되여 今後每月軍費十二萬元을 支給키로決定하엿다 또京漢線의自衛團은 日本軍과協力下에 治安維持에當하고잇스므로 治安部로부터 小銃彈廿萬發을 支給하엿다

臨時政府原則的으로 軍事費를不負擔

【北京五日發同盟】中華民國臨時政府의 財政은 着着堅實한 發展을 遂하야四月末現在에는 이미 七百萬元의 剩餘金을보앗고 今年末까지에는 二千五百萬元乃至三千萬元의 剩餘를 生하는것은 確實視되엿다 右는財政上條件의 好轉도잇겟지만 新政權時代에 最大의出費이엇든 軍事費가 皇軍의駐屯에依하야 全然그必要를 認定치안케된것이 가장 有力한原因이다 그리고我軍의駐屯은 今後아직相當長期間繼續하지안흘수업는 事情에鑑하야 關係方面에서는 日本政府가 現在負擔하고잇는 軍事費의 멧센트를 剩餘金으로써 負擔할것을非公式으로 意見交換을 하여오든바 臨時政府로서는 國防分擔金은 原則으로 負擔치안키로 諒解가成立된 模樣이다 卽現在滿洲國에서는 日本政府에 國防分擔金의 支出을 行하고잇스나右는 日滿議定書에 依하야 規定된 日滿兩國共同防衛의 原則에 基하는것으로臨時政府와 日本과의 關係는右와는 全혀 本質的으로 相異하야 軍事費負擔을 何等의根據가 업다고하야 諒解成立은 臨時政府의 財政基礎를 다시强化하고 明朗케하는것이라하야注目된다

赤十字社總會에 皇后陛下行啓

【東京電話同盟】事變下의 白衣의天使三千五百餘名을 動員하야 傷兵救護에 全力을 擧하고잇는 日本赤十字社 第四十六回通常總會는 六日午前十時 恐懼하옵게도 皇后陛下의 行啓를 奉仰하야 靑山練兵場의 憲法記念館에서 會員約一萬參集下에 盛大히 擧行되엿다 此日 皇后陛下께옵서는 午前十時 宮城御出門 同十時十五分 式場에行啓 式場式自動車鹵簿로 閑院宮載仁親王殿下를 奉迎하야 社長德川家達公以下諸員奉迎裡에 御一旦便殿에 入하옵신後 式場에 臨御 御座에 着하옵시게 別項과 如한 令旨를 賜하옵시다 閑院總裁宮殿下로부터 奉答하옵신後 式을 閉하엿다 陛下께옵서는 同十一時 諸員奉送裡에 御機嫌麗하옵시게 宮城으로 還啓하옵시엇다

令旨

【東京電話同盟】六日日本赤十字社總會에서 下賜하옵신 皇后陛下의 令旨는 左와如하다

玆에日本 赤十字社 第四十六回總會에 臨하야 親히 各員에게 告하는 機會를 어든것을 기뻐한다 本社의 施設은 益益擴充되야그基礎는 鞏固를 加하기에 至하엿다고한다 그리고 今次事變에 際하야는 戰地及 內地의 軍病院에 多數의 救護班을 派하야 本社經營의 病院에는 戰傷病兵을 收容하고 다시 出征軍人遺家族에 對하야도 救護에 努力한다고 함은 기괴 滿足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現下 時局重大에 鑑하야 本社員一同은 協心戮力하야 益益國家社會에 貢獻하기를 바란다

歐洲平和確保코저 무氏、四國協定斡旋?
獨伊樞軸과 英佛協調의 對立을 調整
AP羅馬支局報道

【羅馬五日發同盟】뭇솔리니、히틀러會談의 進展에 伴하야 伯林、羅馬樞軸과 英佛伊協調의微妙한 互相關係가 注目의 焦點이되여잇는바 AP羅馬支局이五日 뭇솔리니首相은 獨伊樞軸과 英佛伊協調의 中間에 나서는(仲介人)役割을 하게될것이라고 觀測하야 左와如히 報道하고잇다 英佛兩國政府가 獨、伊兩國을 誘致하야 四國條約을 締結하야 써 歐洲平和確保의 新基調를 確立하려고하는바 뭇솔리니首相은 英佛兩國의 外交와 獨逸政府와의 中間에서서 一方으로는 伯林、羅馬樞軸을 破壞하는일업시 그러면서 英佛兩國의 協調를 持續키爲하야 兩者의 對立調整에 努力을 集中할것이다 獨逸側에서는 一般으로 英佛協定의意義를 輕視하야 뭇솔리니首相은 地中海制覇의 希望을 버리지안는限 英佛間의 軋轢은 避키어려우리라고 觀測하고잇다 一方 伊太利는 假令 히틀러 總統이 체코問題에對한 伊太利의 支持의 代價으로 伊太利에 對하야 經濟的讓步를 한다고하여도 크게 期待할수는업다고한다 그러나 뭇솔리니首相으로서는 그때 經濟的으로 체코獨逸의 考慮에서 切迫한 獨逸의 체코政策에 對하야 道義的外交的支持를 하지안흘일은업슬터이나 체코問題를契機로 戰爭이 勃發하게될境遇 獨逸에 對하야 軍事的援助를 與할것의 確約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寫眞은 무首相)

히總統歡迎 大觀艦式終了

【나포리五日下條同盟特派員發】五日午後히틀러總統歡迎大觀艦式에 參加한 伊太利海軍의 精銳艦艇二百餘隻은 一旦整列을解하야 潛水艇水雷艇飛行機等의 急降下爆擊、主力艦의 遭遇戰等 模擬戰을 展開하면서 壯烈한 演習을 擧行하얏다 꼿난後 全艦隊는 再次나포리灣에서 整列을지어 히틀러總統、엠마누엘三世、뭇솔리니首相의 巡閱를 밧더다 이리하야 同五時五分大觀艦式은全部終了、히틀러總統은 二十一發의禮砲가 우렁차게울리는 엠마누엘三世와함께 官廷모타뽀트로 릿토리오의新埠頭에 上陸、出迎한 히틀러靑年隊의 一隊를 바가히閱兵한後 獨伊國歌의奏樂裡에 엠마누엘三世와 自動車로 人民廣場에 參集한 二十萬의 民衆의 歡呼에 應하면서 에델트로皇太子御殿인 離宮으로 들어갓다 一方 뭇솔리니首相은 다른모타뽀트로 그뒤로부터 곳上陸하야게-크나驛으로直行 午後六時三十六分發列車로 羅馬에 先發하엿다

時事解說
布哇要塞

前月末 米國議會에서 通過된 海軍擴張案은 [illegible] 一千八百七十五萬一千弗에 達하는데 그中 八百四十八萬五千弗이 同案中의 布哇의 오아프島眞珠灣의 [illegible]로 使用케 되엿다 이는 米國의 太平洋作戰의 前哨基地로서 所謂太平洋上의 지브랄탈인 布哇要塞化策의 一步前進을 意味하는것으로 [illegible] 今回의 擴充案은 아직 [illegible] 計劃에 不滿하나 그主되는 [illegible] 計劃은 眞珠灣[illegible] 增强하야 [illegible] 同兵舍 同食糧品貯藏 [illegible] 오아프島 카네오에灣 補助水上機着陸 布哇島補助水上機 [illegible]等의 建設案이다

◇

眞珠灣은 一九〇〇年 米國이 布哇諸島를 倂吞한以來海軍根據地로서 [illegible]强化하여왓는데 近年比律賓獨立이 決定된後로는 布哇가 太平洋上의唯一한 防衛據點이되는 關係와 米國의 太平洋作戰에잇서서의 [illegible]

◇

이와가티 米國의太平洋作戰에잇서 [illegible]이 洋上으로부터 米西海岸의 [illegible] 또 [illegible] 巨大하므로 太平洋上에 [illegible] 必要케되어 [illegible]

在外派遣員會議

[illegible] 今六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下村保安課長統裁下에 原田(上海)、川民(北京)、田邊(哈爾濱)、原(新京)、佐賀(東京)、鮮島(大阪)、佐佐木(下關)、松島(吉林) 各派遣員出席 三橋警務局長의 訓示가잇슨後 朝鮮內外의情報連絡事項 特히 在外朝鮮人指導保護及總督府와의 連絡等을 中心으로 懇談을 [illegible]

人事·集會

▲水田直昌氏(總督府財務局長)咸興出張中六日午後九時二十五分京城驛着歸任

▲金澤浩氏(總督府釜山稅關長)咸南地方出張中五日午後歸任

▲沖田芳夫氏(日本陸上競技聯盟理事)入京入事次來社

豫審制度廢止等 訴訟經濟化策討議
司法官會議第三日

【東京電話同盟】司法官會同第三日目午後는 三時(五日)부터 司法省會議室에서 裁判所檢事局合同協議會를 開催 本省諮問事項인 司法制度改正에 關한件에對하야 討論을거듭하고 五時散會한바 이에依하야 司法部內實務家의 希望意見도 大略判明하기에이르럿다 即

▲刑事事件에關하야는

一、豫審制度를 廢止할것

一、其對應策으로서 檢事에게行政的責任을 賦與할것

一、輕微事件의 取扱을 簡略히하야 化를 目標하고 犯罪 搜査의 合理化를 圖하고잇는바 要컨대民衆刑事裁判을 早急理의 進步와 訴訟의 經濟化가 必要가잇다

▲民事事件에關하야는

一、小額事件의上告를 制限하는지 그것이 不可能하다고 하면 그上告審을 控訴院管轄으로 옮기면 當事者도 便利하고訴訟의 經濟化도 圖謀할수잇슬뿐아니라 大審院의 負擔도輕케되며 威信도 向上할수잇다

一、刑事事件과가티 簡易裁判制에 對하야도 考究를進行할 必要가잇다

理化를 圖謀하려는것인바 이에對하야 在野法曹가 如何한 態度로 나오는지 또 鹽野法相이 如何한 新案을내릴는지가 자못 注目된다

電力管理準備局官制公布

【東京電話同盟】電力國家管理實施準備로 遞信省外局으로서 新設되는 電力管理準備局官制는 六日官報로써 公布되엿는데 同局의 組織은長官勅任으로하고 長官輔佐로 書記官一名을 두고 次長미테 總務課、需給課、評價課、第一二電氣課、機械課及土木課의七分課를 設置하엿다 그리고長官은 次長의 人事도同時에 正式發令하고 電力國家管理의 準備事務를 開始할터이다

八面鋒

佛國에서는 事變後 法平價를再切下。

◇ 財政의 窮乏은 可知。 그러나 通貨膨脹政策에 엇서선 世界的共通點。

◇ 北長老敎本部의 意思를 無視코 朝鮮宣敎會 財産撤退까지를 可決。

◇ 本部에서 諒解하여도 조타는것을 이곳서 구타여 못하게다는心事는 何在?

◇ 決定權은 本部에 잇스니 適當히 處決하겟지만。

◇ 朝鮮內 敎徒의 希望이 讓渡、賣渡、賃借中 아모것도조 라는데 구지 撤退할 必要는 업지안흔가。

◇ 朝鮮宣敎會及 傳道本部의再三反省을 바랄뿐。

◇ 女子의 新裝이 조흐냐 글흐냐 問題는 各各 보는바가 다르겟지만、

◇ 長點으론 머리빗지 안코、어려 뵈는것일지오、

◇ 短點으론 輕薄해뵈고、古來의 美俗을 업시하는點。

◇ 그러므로 어린애들에겐 勸獎해도 조흐나 시집갈 날을 압둔 處女들에겐 强勸할수업는일。

地方長官會議 第五日

【東京電話同盟】六日의 地方長官會議(第五日目)는 午前九時부터 內務省會議室에서 開會 먼저 遞信省所管의 會議에들어가 永井遞相으로부터 電力國家管理 民間航空의 充實을 中心으로한 訓示가 잇슨後 拓務省所管事項에 옮기여 拓相으로부터 移民問題에 關한 訓示를 한다음指示事項인

一、滿洲移民의大量移住에關한件

一、南米移民宣傳獎勵에 關한件

을 協議하고 正午一旦休憩午後一時부터厚生省所管의會議에 들어갓다

藏相財政策說明 地方長官의協力要請

【東京電話同盟】賀屋藏相은 五日大藏省所管地方長官會議席上에서 長期戰下의 財政經濟政策의 重要性에 鑑하야 午後二時부터 六時半까지 四時間半동안 現下의 財政經濟政策의 具體的內容에 關하야

一、現下의 財政經濟政策의 目標

一、國際收支均衡의 維持及 그 改善

一、物資需給의 適合

一、生産力擴充의 適切한 實行

一、公債消化

一、金利의 適切한 水準維持

一、爲替市勢의 維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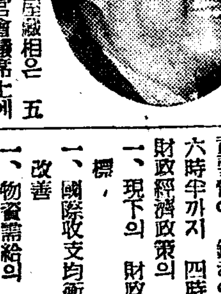
一、物價調整

一、重要物資의需給計劃及國際收支均衡의 樹立

一、輸出獎勵

一、貯蓄獎勵及消費節約

其他의 諸點에 關하야 詳細 說明하엿는데 今回는 從來와가티 形式的訓示를 廢하고 極히 座談的으로 胸襟을 열고 自己의抱懷한 所信을 述하야 時局에 關하여는 劃一的方法을 廢하고 時局에 따라 恩惠를바든 方面에 重點을 置할것等에關하야 强調 各地方長官의 協力을 要請한것은 注目된다 (寫眞은 賀屋藏相)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六日의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五十分首相官邸에開會、近衛首相以下全閣僚出席 賀屋藏相으로부터 王克敏氏와의會見顚末에關하야 報告하고 同會見에서 王克敏氏는 現地로부터의 新聞報道에 依하면 臨時政府는 日本國과 諒解下에 事變費를 分擔치안키로되엿다고 傳하고잇는바 臨時政府는 이問題에關하야 何等關係하는 것이아니다 이가튼事實은 全然업다는 旨를述하엿다는 報告 그리고 官吏制度改訂案은 同日의閣議에附議치안코 十三日의 閣議에서 船田法制局長官으로부터 原案을說明한後 審議를 求하기로하고 十一時四十分散會

鯉登大佐赴任日程

鯉登行一大佐는 明七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驛通過新任地에 向한다

樺太長官更迭 後任에는棟居俊一

【東京電話同盟】今村樺太長官은 압서 辭表提出中이든바 六日의 閣議에서 그後任에 拓務省管理局長 棟居俊一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고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一兩日中에 左와如히 發令하기로되엿다

依願免本官 樺太長官(一等) 今村 武

任樺太長官(一等) 拓務省管理局長 棟居 俊一

그리고 棟居管理局長의 後任은 同省會計課長 關島勝氏를拔擢하기로되여 六日의 閣議에서 左와如히決定 一兩日中에 發令할터이다

任管理局長(二等) 拓務書記官(會計課長) 關島 勝

"現在世界不安"은 滿洲事變에基因
米陸軍長官의演說

【華盛頓五日發同盟】우드링陸軍長官은 五日華盛頓에서열린 全米商業會議所年次大會에 臨하야 緊迫한現下의國際情勢에 對하야 演說을하엿는바 其中獨裁諸國의 政策을 攻擊한後 現在의世界不安은 一九三一年의滿洲事變에 基因한다、고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獨裁國家의不絶한侵略行爲는 及其他 民主主義諸國을 戰爭으로 모라너흘것이다 世界의 民主主義諸國은 現在極히 平和主義的이다 그러나 過去에 잇서서는 언제나 平和하지는 못햇다 過度의 恐慌된 感情이 그들을하여금 언제까지나 平和主義를 支持하기는 困難케할것이다 現在世界의 無風狀態의 原因은 여러가지가 잇스나 就中一九三一年日本이 滿洲에 侵入하고 게다가 民主主義國家로부터 重大한 反對를 밧지안햇다는 事實이 一般으로 現在의 情勢를 招致케한 有力한 直接原因이다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社員招聘 一、年齡二十五歲以上 二、鮮內各地駐在 外交の經驗の有無不問 三、希望者は履歷書持參 京城府長谷川町一二 朝鮮支部長 白石二男

自動車 全!最高權威の朝鮮自動車學校 (京城府太平通) 來訪歡迎 入學規則送呈

家具 事務用 椅子 卓子 書箱 陳列棚 寢臺 戶棚 吉岡 京城府本町三丁目 金剛山商會

女子 八才より二十三才の容姿端麗な女子 本町三丁目 職業紹介所

朝報案內

結婚 衣裳 [illegible] 文化結婚式部 電光四七八 越便タクシー

朝鮮防水布製造所 雨衣 荷車覆 貨物自動車雨具 京城府新堂町 振替京城五一〇七二番

雨衣都散賣 우장옷 여러분의 사랑하는子女들의 우장옷은 다준비되엿습니까 雨期는 일로부터올시다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カメラと材料 岩瀨寫眞機店 京城本町一丁目 電話七五五·振替七五五

ヤンマーヂーゼルエンヂン 於農林省比較審查甲位入選 內燃機界의覇王 在庫豐富 ヒューガルポンプ 2時ヨリ12時迄 2HPヨリ120HP迄

平安南北道總代理店 古賀商會 平壤府八千代町六二 電話二四五八番 振替京城二六一九番

麻雀 自家製造 東京淺草藏前 下方屋 倶樂部向·家庭向·牌彫直改色 カタログ送呈

翡翠玉簪 製造都賣 京城府平洞町二六 朝鮮セルロイド工業所

三仙膏 종기에 수술로 고생하실 것 없이 三仙膏를써보시오 東京·本鋪·城鍾路 共生藥業株式會社

寫眞に最も近きコロタイプ印刷 カウペ寫眞工業所

京城中等學院生徒募集

青年諸君!光明ハ技術カラ求メヨ

皮膚 チャーシ 顏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股間습증 근질근질한皮膚病에特效 東京神田 山崎帝國堂

銘酒 誠鶴 春は野に山に 醸造元 深見醸造場

株式會社 漢城銀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頭取 林茂樹

黄金座 一行來演 日本ヘレンとネックィディ 七日 八日

今日公布

銑鐵鑄物、銅合金使用 製造制限·範圍擴大

一般日用物品及部分品에適用하야 十日、十五日부터各各實施

현하시국에 대비할 군수(軍需)용선철(銑鐵)은 이것을 공급확보할필요가 절실하며 또한 수판게 산업의생산력 확충을 도모하는 기계용주물(鑄物)의수요가 또한 격증하는 추세에잇스므로 이에 대처하며 또지구전(持久戰)을대비 욱 견실히하자면 선철수요공급의조정을 철저히하는동시에 일반일용품류수요에관하야 극력절약할필요가 잇스므로 총독부에서는 내지와보조를맞추어 총독부령 구십사호로써 선철주물(銑鐵鑄物)의 제조제한에 관한것을 오일부로 발표하야 오는십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엇다

총독부령제구십사호의 내용인즉

「조선총독의 지정한물품은 그부분품이선철주물로써 이것을제조하지못함 단 특별한사정에의하야 도지사의허가를 밧는경우에는 차한에부재함」

이러한규정되엇다

또 제조제한을요하는 지정물품에대하야는 역시오일 총독부고시로써 발표되엇는데 그지정물품의 종류는 다음과가튼 사십칠종이다

◇製造制限鑄物品

[illegible]

◇銅使用制限物品

[illegible]

놋그릇이귀해진다

一般鍮器業者에게一大打擊

오는십일부터 조선에도 실시되는 「구리의사용제한령」에의하야 우리일상생활에 큰이변이생길것은 놋그릇(鍮器)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illegible]

雨量洽足

며칠동안은장마날세 農家의愁眉는펴다 仁川觀測所發表

오일새벽부터 나린비는 그동안계속하던 가물을 얼마쯤 해소한터이나 지방에 따라서는 아직부족한곳도잇는 모양이나 그만만해도 농가에서는 크게기뻐하는모양인데 인천(仁川)관측소의 발표에의하면 비는대체거치지안코 수일간을 장마날세가트리라고하야 이번비는 농가에흡족할 모양이다 한편각지의 우량은 다음과가트다

저기압은 황해로부터 조선 일본해에빠지어 조선은 기압의골작이가되어잇고 황해남부로부터 일본 중부동지는 야튼저기압이 통진하기때문에 조선과 내지의 천후는 어데던지 조치 못하다 조선중부이남으로부터 서일본일대에는 비가왓는데 어제아침부터 오는비는 조선중부에는 이십미리로부터 최고사오십미리 남부에는 최저십미리로부터 이십미리 가량의 우량에 달하엿다 고기압은 소립원(小笠原)방면에 정체되여잇고 또 몽고(蒙古)에도 고기압이 발생하야 북지나로부터 만주일대에는 개여잇다 조선은이두기압사이에끼워서 기압의 골작이가되어잇다 그런데 현재 조선을 중심한기압배치를 보면 수일내로는별반의 변화가잇슬듯십지안타 따라서 비는개이지안코 마치장마날세가튼 비가오고 흐리고 흐른개이기도할모양이다

各地雨量 (六日午前六時現在)

中江鎭五 新幹四三 仁川二八 京城三二 全州一七 木浦三 釜山三三 大邱一二 新義州一 平壤五七 元山二三

新町娼妓慘殺犯 腐爛屍體로發見

數日前漢江岸銅雀町에漂着 殺害動機는무엇인가

지난달 이십이일 오전여덟시 자살하려다 밋지못한 신정(新町)유곽에서 창기 광자(光子)의 자살사건이 잇섯는데 이사건은 자살이아니라 타살의혐의가 농후하므로 대재어는자 가 무엇때문에 이여자를 죽엿는지 도무지단서를 잡을수가 업서서 일반의흥미를 자아내고 잇섯다 소화경찰서에서는 이전부터 창기 광자(光子)의 [illegible] 판명되엿다 [illegible]

女囚에게 裁縫訓練

여자는여자에게 적당하도록하사는주지하는 [illegible]

一、場所 西大門刑務所

二、訓練期間 六月上旬부터六個月間

三、訓練人員 가、洋裁 十五名內外 나、和裁 二十五名內外

四、訓練種目 [illegible]

愛國獻金 四百七萬圓

四月末現在愛國部接受分

조선군사령부애국부에 드러온 지난사변이후현재의 애국헌금은 [illegible]

引退學校所屬財産 傳道本部貸與意思

怪!實行委員會는反對決議

재작년 칠월에 열렷던 재조선미국북장로교파선교사 총회에서 소위 「교육인퇴원칙」이 결정되여 이미평양(平壤)의숭실(崇實)계통의 세학교는 이결의에 쫏차서 완전히 폐교되고말엇거니와 이에따러 당연히 경성의 경신(儆新)·대구(大邱)의계성(啓聖)·선천(宣川)의 신성(信聖)등 북장로경영의 여러학교의 장래가 염려되어오던중 그동안교장 「쿤쓰」씨와 동교리사회동문회등의 노력으로경신노회(老會)의 찬동까지 어더가지고 금후로는 규약상 학교경영의주체로 되여잇는동교리사회(理事會)가전책임을지고 학교를 경영해나가기로하여서 동교의 전도에 다시금 서광을보기에 이르럿는데 남로교제는 현재 북장로교 「뉴욕」본부의 소유재산으로 되여잇는 동교기지건물을 동교리사회에 대여(貸與)케될수잇는나업겟느냐에 달려잇서 이에대한전도본부의 회답을 초조히기다리고잇섯는데 드디어 지난 삼월이십일일 뉴욕에서열린 전도본부의외지(外地)전도국 회의에서 별항과가티 비단경신학교뿐만이아니라 전조선에잇는 동교파의 경영의학교전체에 편한중대한의사표시가잇섯다 그내용은 미국 [illegible]

否決은遺憾

最後의決定은本部에서 徽新校長쿤쓰氏談

[illegible]

傳道局總務의訓電全文

直接當局의任에當하는老會가同意하는限 其國人信徒에게學校經營하야 또는一時的으로 本部所有의不動產을 使用하는權限을默許하기爲하야 本部는事에 學校財產을 讓與하는件에關한 一九[illegible]

行旅病者、死亡者 取扱法令을成案

明春부터實施模樣

조선의행려병자 급행려사망자(行旅病者及行旅死亡者)는 그취급에대한 일정한 법령이업시 [illegible]

큐바에서 七雙童

한번에이사망

【하바나=큐-바=五日發同盟】 큐-바도(島) 바야모-교(敎)농부의 안해로 금녀 에설흐잘 나는「타루러카바노바」라는 여인은 오일오전에 칠남매를 해산하엿다 칠남매 가운데서 여섯이 사내아이고 하나가 계집아이엿다는데 조산(早產)이엿슨관계로 [illegible]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하나는蒙古로부터 滿洲로퍼지고 또하나는 本邦南東方海上을 덥고잇다 朝鮮은 이高氣壓에끼여서 氣壓의谷이되여잇고 滿洲局의 西方海上、靑島西方、日本海中部、樺太附近에는 小低氣壓이 잇서함께 東進하고잇다 天氣는 滿洲는大槪晴天、朝鮮은北部가흐리고 그다음은 비가온다 日本內地는 西部는 비가오고 그밧게는 대개흐리다

豫報 京城地方今夜는 흐리고 小雨 明日은흐리고 一時晴 京畿全般도갓다

各地天候 (今朝六時現在)

作日最高 二二度 同最低 一七度二 今朝最低 一七度三 今日正午 一九度四

▲釜山雨 ▲木浦雨 ▲全州雨 ▲仁川雨 ▲江陵曇 ▲元山雨 ▲新義州曇 ▲中江鎭曇

色鉛筆

이마를 짓는다는것은 여자들이 하는일이엇다 ▲남자들도 옛날에 [illegible] 이마를 쓰지안는다는것은 여자들의 하는일이엇다 ▲그러데 근자에보면 「모단뽀이」라는 청년간에 이마를치는것이 유행하는데 ▲좋은 이마를 죄선치밀거나 또이마를 양편실쪽으로만 길숙히 깍가올려가지고 어떠케보면 약간 빈대머리비슷이 만든다 ▲이것이 어데서나온 버릇이냐하면 활동사진배우의 「로바-트테이라」식이라던가 ▲면도로칵근자리가 새파라토록 해가지고도 활동사진배우숭내만내면 제일인지? ▲못도니 제이롤은 대체무엇이라데…。

坑夫八名慘死

大同三神洞炭坑에서瓦斯爆發로

【平南支社電話】 오일밤 구시경 평남 대동군 림원면 북사리(大同郡林原面北四里)조선무연탄주식회사(朝鮮無煙炭會社)소유의 삼신동탄갱(三神洞炭坑)제이항의 지하삼백십미돌되는 지점에서 「메탄까스」가 폭발되여 항내가 문허지며 마침 항내에서 작업중의 오십여명의갱부는 지하에 무치여 생사를 알수업시되엿다 고맙것을 곳 사용(寺洞)탄광에 응원을 청하야 구명기(救命機)로써 긴급구조작업을 개시한결과 자정에 이르러 대부분은 구조하엿스나 그중 팔명은 마치내 사망하고 한명은 중상을

時의記念日行事

一分間默禱、皇居遙拜

"때"(時)의 존중이 [illegible]

濃霧로 連絡船遲着

오일오후여섯시에 부산(釜山)에들어오는 관부련락선(關釜連絡船)은 [illegible]

台章面長被訴

[illegible]

海軍記念日에 一分間默禱

犧牲者追悼、戰勝祈願

[illegible]

久原、津雲兩氏

六日各各無罪判決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朝鮮體育會總會

明七日府民館에서

朝鮮體育會總會는 明七日午後二時부터 大平通府民館集會室에서 열린데 一般會員은 無漏參席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嘉納翁後任에 永井松三氏推薦

【東京電話同盟】 嘉納翁의 急逝로因하야 생긴國際올림픽委員의 後任에對하야서는 體協에서 五日午後一時半부터 體協事務所에서 緊急理事會를 열고 愼重審議한 結果 永井松三氏를 滿場一致로 推薦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治淋特效藥 治淋特效藥 治淋特效藥 治淋特效藥

G-U-사이드는어데서求할수잇나?

(지유)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함

從來의治淋劑와는 全然그有效成分을달리한 治淋特效藥으로서 全世界的으로 多大한센세이순을惹起한 G-U-사이드는 果然東洋에서發賣된지 不過數個月에 그特異한效驗을본 患者의數가 날로激增하여갑니다。

따러서各地로부터 G-U-사이드를 求하는患者가느러가므로 全東洋各地有名藥房에서 購得할수잇는 便宜를提供키爲하야 到處에販賣網을펏사오니 어되서든지近處藥房에서購入하야 一日이라도速히治療하시기를바랍니다。

東洋各地販賣店

江原道三陟邑 天命堂藥房 …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illegible]

昭和의常識

列強의陸軍制度는 日本과 [illegible]西亞는 徵兵、中華民國은募兵、米國과 英國은募兵

兵員數는 [illegible]二〇萬、[illegible]約百八萬、[illegible]七十萬、[illegible]二萬、[illegible]六五〇[illegible]

消化器 口香劑 仁丹

朝鮮特産品展

나무싹이들때로부터 身体가衰하기쉬우니 惡化안되도록 이手当이肝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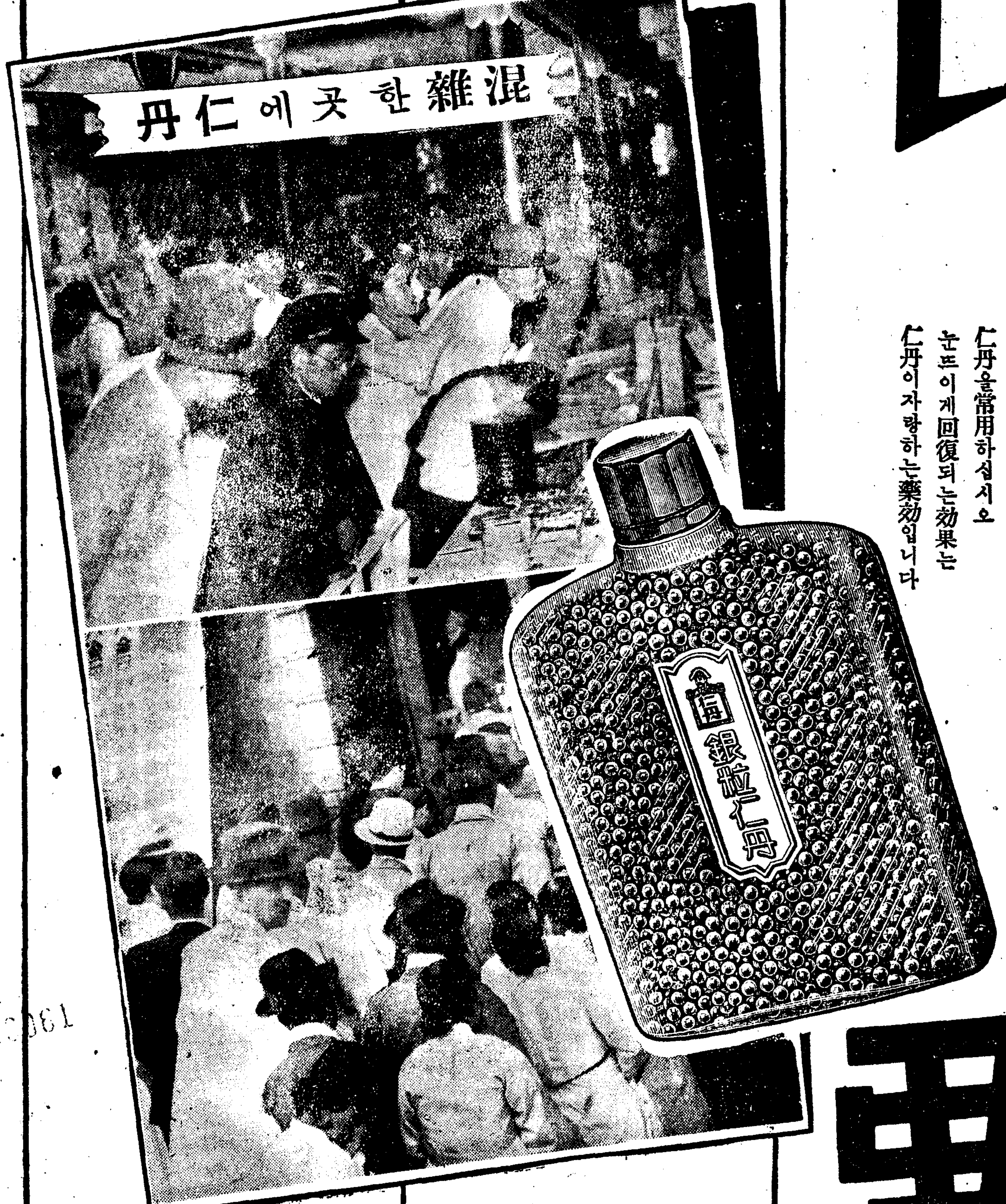
갑작이 上氣氣味가잇다가 나중에는不快한病을 誘發하며 或은 眩氣를이르켜서 危險한 症狀을 招來합니다 지긋지긋한 頭痛도 또한 일로부터 의季節病이니 惡化되기前에 適切한手當을하심이 肝要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먼저 이러한症狀에 絶對的効果를가진 **仁丹**만은 한때도 노을수 업습니다

胃腸을害첫슬때、元氣가업슬때、憂鬱할때 記憶力이減退햇슬때、感氣앓을때、榮養不良의症狀에、貧血症狀에

仁丹을常用하십시오

눈뜨이게回復되는効果는 仁丹이자랑하는藥効입니다



森下仁丹株式會社

家庭

곳속이 근질근질한것은 기생충이잇는탓
입으로만아니라상처로도드러가 습관부칠야채의소독

어린애들이 코구녕이 가렵다고 손구락을 트러넛는수가잇는데 이상야릇한 소리갓지만 이건 회충이나 십이지장충이나하는 기생충이잇는까닭입니다. 회충, 십이지장충가튼 기생충은 푸성귀에붙터부터 사람의입으로 드러오는것이일지만 손발의상처로부터서도 드러옵니다. 미균이될것가트면 임파선(淋巴腺)여기저기에서 막어내기라도 하겟지만 기생충의새기는 어떠케할수가업습니다. 그러므로 기생충이 사람의속으로 드러와서 제일살기조흔곳은 폐(肺)입니다. 기생충의유충은 폐속에서 이민삼민 사민(二、三、四眠)을 다하면서 성장합니다. 채소로해서 뱃속으로 드러온 기생충의유충이라도 위벽(胃壁)회격막(橫膈膜)을뚤코서 폐로드러가 기생을합니다. 흔히 혈담이나와 폐결핵의초기로 오진되는 수도잇고 천식(喘息)으로오진되는수가 잇는데 이게모두 기생충이폐속에 드러가서 살기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란 기생충은 인제차차로 십이지장으로 가게되는데 먼저자리를트느라고 폐로부터 코와입으로 나오게됩니다. 그래서다시 입으로부터 위로 장으로 차츰차츰내려갑니다. 따라서 목구녕으로 나올때는 미숙미숙하고 코로나올때는 코구녕이가렵고합니다. 기생충이 알(卵)을퍼트러나와서 제이면(第二眠)을하기는 동오줌속입니다. 그럼으로 푸성귀바려주는 동오줌은 적어도 한달이상 두어썩켜가지고 기생충이죽은뒤에 거름으로쓰게해야 합니다. 도회지의 애들은 배에 마흔등 충의애들은 뱃속에 아홉다섯이 기생충을가지고잇습니다. 얼마나엄청난통계입니까. 그럼으로 다른나라와달리 유난히 푸성귀를날로만히먹는우리로서는 반드시채소를 소독해먹는 습관을가저야 되겟습니다.

내외한몸이지만 서로밧들자
안해에게보내는소청 남편에게보내는소청

내외간이 살자면 아모리 참떡가튼 새라도 갈금 차질합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부부한몸일지라도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밧드는것이 잇서야합니다. 여기에 남편으로부터 안해에게 주문하는것과 안해로부터남편에게 주문하는것을 보내오니 여러분은 다 각각 작설하여오시고 어디 한번 실행해보시십시요.

◇남편으로부터 안해에게

一、불르거든 재깍 대답을 해주시요.
二、옹색한 살림사리라도후스며 해주시요.
三、되지안흔 청을 하지마시요.
四、바아지를 긁지마시요.
五、친척이나 친정집을 의뢰치마시요.
六、조구만일이라도 남들에 욕두히 하지마시요.
七、불집안을 깨끗시 치어주시요.
八、제발 궁상이 끼고 겨름시마러주시요.
九、어디가 아푸거든 곳내게말하시요.
十、남편이 드러오거든 좀 반갑게 마저주시요.
十一、집안 가용은 쓴데로 좀 최다 적어두시요.
十二、때로는 어머니처럼우 드러게.
十三、갑작이 손님이 와도 짜증내지마시요.

◇안해로부터 남편에게

一、아침잠을주무시지마서요
二、밤늦게드러오시는건참말 속이 상해요.
三、저금을 해주세요.
四、때때로 내가 처음 시집왓슬때처럼 위해주세요.
五、출입하실때는 반드시어 디가시는걸 말슴해 주세요
六、괘니 사람을 들복지마러주세요.
七、무슨 걱정되시는 일이잇거든 좀 내게도 말슴해 주서요.
八、반찬이업서도 남으래지 말고 진지를 만히 잡서주세요.
九、갈금 상보다 구경이라도 다리고 가주세요.
十、어디 길을 떠나시거든 곳 편지를 주서요.
十一、아이들잇는데서 나를 말으허지 마세요.
十二、게집자식의 흉을 남붓헤 하지마서요.
十三、밤에 나가시거든 들저녁가는때는 집에를 기세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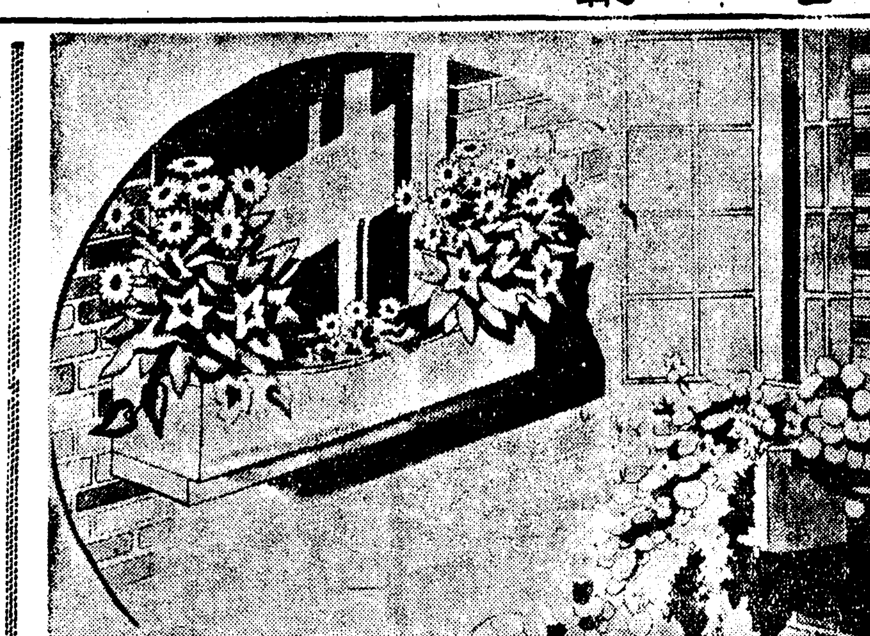
나쓰미깡 맛잇게해먹는법

요즘 나쓰미깡이 만히 납니다. 그런데 너무 시여서 먹기어려운분은 어디한번 이러케해잡서 보십시요.

먼저 미깡을 쪼개서 그속에 알맹이만 빼아서 사발가튼데다 담읍니다. 그런다음 물을 얼마쯤두고 거기에 탄산소ー다한수까락을 탑니다.

그래서 미깡알맹이가 탄산소다물에 푹잠기도록 해가지고 한이삼십분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런다음 큰접시에 건저노코 그우에 설탕을 처서먹으로 너무 시지안코 조흡니다.



보기에도 즐거운 윈도우빡스
도해지의생활을취미화한다

실내를 깨끗시 아름답게꾸미는것도 조흡니다만 이제부터해방적인 여름에걸처서는 밖게서지내는 생활과함께 봇드러 매는것이 생활을 취미화하는데 필요합니다.

요새 서울바닥가튼데를 보면 셋방사리를 안코 집간이나작만해가지고 산다할지라도 뜰을 경영하란하는분이 만슴니다. 웅달진 손바닥만한 마당에 장독대를버려노코 수채를파노코 보면 처마자락을 여미구서야 겨우 드나들지경이니 꼿나무심어볼엄두는 못내보실겝니다. 이런판에 자연 생활을 즐길수잇는 수가 잇스니 그것은『윈도우·빽스』라는겝니다.

거리의집집의 들창마다 란만한꼿들이 작식되어잇다면 그들창속의 단란한가정생활을 상상할수잇슬뿐외라 길꼿것는사람의 마음까지 흥겨울겝니다. 이러코보니 방속을 꼿으로꾸미드시 집의바깟쪽 즉들창에도 『윈도우·빽스』를 장식하면어떠켓습니까.

맨드는법이래야 간단합니다. 들창거기에따라 그만큼 길게하고 폭파기괴를 칠팔촌가량되게 튼튼한나무괴작을 작만합니다. 밋바다에는 물이빠저나갈 적은구녕을뚤코 그우에 기와장쪽이나 납다한돌을언지고 흙을 꾀작에 채웁니다. 꾀작에 페키칠을할려면 푸른비치(綠色)이 조흔데 왜그러냐하면 어떤빗갈의꼿이·피드래도 꾀작비치방해가안됩니다.

인제 꾀작에심울꼿으로는 두어가지빗갈을 배합하는것이 조흡니다. 밝은 오렌지빗치라거나 누른빗의 금잔화에 하ー야마ー가렛트, 또는자주빗의 시차초(矢車草)에 금어초(金魚草)여러가지빗갈의 스위ー트피ー가튼것도잘 어울리겟지요. 새밝안 『사르비야』에 하얀분꼿도조흡니다. 여름온치로 보아 나발꼿도조흡니다. 윈도우·빽스의꼿에는 키큰화초를 택하지맙시요. 실내의채광과 통풍에조치안으니까요. 또멀리서보드래도 빗갈이찬란한꼿이 효과적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세가지빗의오랑캐꼿, 떼이지가튼꼿은 가차히서보기귀엽고 키도적고하나 박게서 멀리서보면 눈에써들지안습니다. 나빨꼿, 금잔화, 스위ー트피ー가튼 넝쿨지는화초는 그넝쿨을 리용해서 꾀작의나무를 가릴수잇스니까 퍽편리합니다.

어둠침침한데서 일해도 근시가돼
안경잽이만키로 일본이 세계적 아이들눈부터 보호하자

일본은 세계가운대 근시(近視)가 만키로 면재안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에나 구라파에가서 동양사람으로 안경쓴 사람은죄다 일본사람입니다. 이것은 국민보건상 결코조흔현상이라고할수가업습니다.

요즘 통게표를 내보면 점점 근시가되여서 안경쓰는 사람이 느러갑니다. 더구나 어릴때보다 커갈수록 근시가 만허집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조사해보면 소학교 시대에는 백사람에 ……사람이 안경을 쓰게되고 중학교에는 백사람에 서흔여섯 전문학교와 대학엔 백사람에 잇서서 쉰두사람――절반가진사람보다 오히려 근시가 더만흔편이니 기막힌 일입니다.

근시되는원인

근시는 선천적으로 유전성을 가젓다고하나 후천적으로 눈을 잘못써서 생기는수가 더만습니다.

말하자면 늘 글시를 쓴다든지 글을읽는다든지 그리고 무슨 손으로하는 세공품(細工品)을 만든다든지하는 사람은 대개눈을 상해서 근시가됩니다. 학교에잇서서도 중학교 대학교로 올러가는데따라 공부도더 만허지고 공부하는 책의 글자도 점점 잘어짐으로 근시가노픈학교로 갈수록 만허지는것입니다.

근시의예방

그러므로 늘 눈알펌을 만히쓰는 사람이나 책을 만히읽는 사람은 특별히 주의해서 눈을 상하지말어야합니다. 거기에대한 주의 몃가지를 여기 적겟습니다.

一、자세를똑바로가질것. 책상에 마주안저 글을 읽어나 쓸때는 몸을할수잇는대로똑바르게해야합니다. 책상우에 업드리거나 한손으로 턱을괴이거나해서는 못씀니다. 그리고 교의를 너무 뒤로 물려노치도 말고 너무 밧삭다어노흘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자리스속에 누어서책을 읽는것은 금물입니다.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누어서 읽지마십시요.

책을 읽는다든지 글시를 쓴다든지 바느질을한다든지 이런한일은 눈에서부터 삼십센치이상을 멀리해야합니다. 이거리보다 조금이라도 눈에다 가까히갓다대이면 필요이상으로 양쪽눈알을 안으로 모호지아호면안되게되는데 이러한것이 다 근시가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전차안에서나 기차타고 책을읽어도눈에 해롭습니다. 그것은 차가 흔들리는데따라 란눈파책사이에 거리가 조금식변해지므로 눈의 일정한 조절(調節)로는 똑똑히 보히지안코 더구나 그안에 망선도 불충분한까닭에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책을 눈에 가까히 가저다대이게됩니다. 눈은 종용히 쉬워야합니다.

……몸이 몹씨 쇠약해젓슬때도 눈이 칠칠해지면서 근시가됩니다. 또는 집안에서 안주일만하는분이나 늘 글씨쓰는분은 때때로 한눈일을 노코 박갓을 머니내다보거나해서 잠간식이라도 눈을 쉬워야합니다.

그리고 애들에게는 할수잇는대로 히고선명한 종이에 굴자를 크게박은 책을 읽히도록하십시요.

더구나 불빗은 늘 충분히밝어야하는데 흐린날엔 나제도 방안에 불을 켜도록해야합니다. 흐린날 컴컴한 방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것도 눈에 조치못합니다.

밤에는 천정에다 다라맨 전등의 발광면에다 책상을노코 공부하는데 전기다마에서 불빗치 바로내려쏘이지 안토록 엽흔 종이가튼것을 가려노흐면 조흡니다.

지차리우

덤벙이

차근 하지못한 사람을 덤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옹기전에 가서 어퍼노흔 항아리를 벗적처들드니

『온 이전무슨항아리길래 아가리가업담』

하고 투덜거렷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돌려보고

『홍, 게다가밋바닥까지 돌러 빠젓구면』하드랍니다.

(글은사람 최상인)

長篇小說 愚氓 【23】
朴泰遠 作 洪祐伯 畵

敎主와그아들(三)

화수는 말업시 구두를 벗엇다 역시 말업시 대청으로 올러가 안방 밖은 박게서 외투를 벗엇다.

『웨? 치운데 그냥 입고들어오지 안쿠……』

화수는 이번에도 대답 업시 벗은 외투를 기둥 못에다 걸어 노흔 다음에 방으로 들어갓다.

아랫목 보료우에 안저 잇든 그 풍채와 기골이 번성하지 안흔 사나이가 바로 김화수의아버지 전영호――올에 마흔세이 되는 그는 하부다에 저고리에 삼팔 바지 양단 조끼에 모본단 마고자로 젊잔케 『호사』를 하고 눈을들어 마악 방에 들처선 손주합을 그는비로소 날 탕옵게 바라본다.

『예습니다』

『아―니 볼에다?거 흔일본 헤구나 병원에 가 봣니?』

『그냥 약 발럿습니다。』

『병원엔 안가고?』

『무어 대단치 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다만은…』

아버지가 그래도 염려스럽히 아들의 다친 손을 바라보고잇슬때 압참미다지 박게 할멈의 목소리가 들린다。

『영감마님 진지상 곳 올리랍쇼?』

『응 들여오게 술 좀 따뜻하게 데서…』

그리고 다시 생각난듯이 화수에게 향하여

『너 참 저번에 어디 왕해든 갓섯다구?』

『네―』

『어디, 어디, 돌럿니』

『백천―』

『응』

『해주―』

『응』

『신천 온천까지 갓다 왓습니다。』

『그래 어떳니? 재미 잇섯니?』

『별로 무어……』

『으응。……그 겨울이 돼나서 고생스러웟겟다。』

잠깐 말을 끈혓다가

『그래도 여행 다니는게 조치니라。위선 사람이 문견이넓어지니까、……공부도 아무렴、부지런히 해야 허지면이다 늘 집안에만 들어엇지 말고 이제 날이나 따뜻해 지거던 때때로 여행을다녀라。』

『………』

『참매월 용돈이 부족하지나안흐냐? 좀더 쓰겟거든 말을해라。』

『아니요。도리혀 남는 편입니다。』

『그래도 여행이라도 한다면그 돈 가지고는 어려울께니 그러면 경록이한테 더 청구를하렴。 사람이란 잠깐 박게나가도 드는것이 돈이니까…』

방문이 열리며 다옥에 할멈이 『영감마님』것과 『데렌님』것과 서상둘을 차례로 날러들인다.

화수는 어서는 아들은 아무 표정도업는 얼굴로 그에게 세배를 하고 문아폐가 그대로 단정히 꿀허안는다. 아버지는 그의 좀 여윈듯시픈 빰을 가엽게 바라보며 말하엿다.

『게 차다。이리 내려 온。』

『차지 안습니다』

화수는 그에게 외면을 한채 대답한다.

『그동안, 늘, 몸이나 성햇섯드냐?』

『네―』

『이번에 옮긴 집은 어떠냐? 주인은 조흔 사람이라고하더라만, 음식 가튼것은 어떠냐 입에 맛니?』

『잘해줍니다。』

『방에 불도 잘 때주구?』

『네―』

『너 그 양복이 춥지나 않흐냐?』

『춥지 안습니다。』

『내의를 든든히 입으면 견디기는 하겟지만……, 그래도 어디 조선옷만이야 하겟느냐?』

『………』

『참 저번에 보낸 조선옷잇지 안니? 그걸 좀 입지안쿠?』

『역시 양복이 편해서요。』

『역시 (솜)편이겟지。내의만 든든히 입으면 파히 춥지는안흘께지……』

『아―니, 너 손은 웨 그러냐?』

화수는무릅에 노혀 잇는 붕대이가튼것을 가려노흐면 …… 대 그 … 그곳은 이번이 처음이 아마 … 렷다?

祝特產品展

杆城

我也津築港期成會
會長 朴敏亨
副會長 李九鳳

襄陽郡 我也津漁業組合長 韓致鷹

我也津漁業組合理事 李圭桓

襄陽郡土城面栢村里 朴周夏

襄陽郡土城面淸澗里 水產業 金延壽

襄陽郡土城面鷗岩里 內外科 產婦人科 醫師 南龍祐

襄陽郡土城面我也津里 水產業 朴昌勳 朴在弘

襄陽郡土城面天津里 張弘俊

襄陽郡土城面我也津里 水產業 李正秀

襄陽郡土城面我也津里 水產業 全永南

至誠堂醫院 公醫 金光洙

巨津築港期成會長 宗利小一

巨津 張基奭

巨津港 夏目廻漕店

黃潤根

襄陽郡土城面我也津里 崔昌洙

徐柄澤

襄陽郡土城面鷗岩里 金成運

ゴム靴專門 宋順元商店

巨津 協生醫院 醫師 李忠源

◉朝鮮運送株式會社 東海北部線巨津驛前 巨津代行營業所 振替京城二四五九五番

水原

南陽穀物協會

水原邑本町四丁目 洪思成

水原郡台章面勤谷里 尹元成

水原 金曜會

水原郡南陽面 面長 朴商德

水原邑南部町 [illegible] 主 [illegible]

水原邑南部町 [illegible]商店 主 金[illegible]

水原稅務署

水原酒造組合

水原南門外 振興商會 主 劉碩烈

水原郡峰潭面 面長 洪承殷

水原郡水原邑梅山町壹丁目 ◎水原[illegible]組 代表者 朴勝根

水原郡安龍面 面長 金南韶

水原郡安龍面 面長 金庸模

水原邑 華城券番 電話二三九番

東洋纖水原 南北棉業株式會社 操棉工場

水原邑本町二丁目 印刻名刺 美術印刷 官廳用達 天寶印舖 主 成[illegible]

水原邑本町四丁目九 江南映畫園 電話五七番

名畵鑑賞部

柳哲圭

全州

全州府廳 府尹 高堂健二 外職員一同

全羅北道定州郡鳳東面恪平里 鳳翔產業組合 組合長 李元求 理事 金恩成

全州七曜會

丹城

晋州郡平居面貴谷里 鄭泰奭

慶尙南道山淸郡丹城面城內里五八八番地 丹城金融組合

山淸郡丹城面長 孫炳國

山淸郡丹城面沙月里 金祐達

山淸郡德山市 德山產業組合

晋州邑西鳳町三三二 崔寅愚

山淸郡丹城面沙月里 鄭道和

山淸郡丹城面虎里 鄭道時

河東郡玉宗面宗化里 閔明鎬

山淸郡丹城面召南里 趙在弍

晋州邑西鳳町 崔寅杰

山淸郡三壯面洪界里 柳震守

山淸郡丹城面城內里 朱相彝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李炳殷

山淸郡丹城面城內里酒造場 主 崔毓林

山淸郡丹城市場商店 主 堤一男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權宇容

山淸郡丹城面堂山里 李會壽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李龍洙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李人根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李鉉[illegible]

學藝

本社에서 今番 紙齡六千號記念及本社新五周年記念의 뜻기픔을 함께 마지함을 自記하기위해 朝鮮特産品展覽會와 鄕土藝術大會를 開催하엿든것은 실로 그意義가 自畝에만잇는것이아니고 어떠에 朝鮮의 歷史的全貌를 經濟的으로 또는 文化的으로 물고로 展示하려는것이엿든만큼 果然 어反響은 山響海嘯한듯해서 全朝鮮的으로 絕讚과 感激의 歡呼속에 鄕土藝術大會는 지난 四日밤으로 끄흘마첫다.

그러나 이만한 歷史的인 民藝를 一般의 記憶속에 기피남기고 간 이大會를 지나간 일이라해서 그대로 잇을수가잇겟기에 各界의 權威들의 이번大會에對한 感想을 드러 이에 附錄하는것은 다만 이 印象기픈 이번大會를 다시 回顧하는것보담 各方面의 專門家的見地에서본 이번의 가지가지 民俗藝術은 어떠한影響을 가저 어떠케文化的으로向上發展시킬수잇슬까하는데 一助가될까하는데서披露한것이다(一記者)

湮滅에서 復活로 燦然히 빗난 民藝大會

民俗學者 宋錫夏

貴社의 이번 民俗藝術大會를 베부러주데 對해서는 먼저 感激함을 마지안습니다 내가우리의 묵은 文化로 湮滅하여가는것을 차저내여 復活도식히고 記錄도하여 남긴래 苦心하엿스나 언제든지 내혼자서 부만첫지 춤추는 사람이 엇든때를 이제는 回顧란는 스—를에 너케되엿습니다。우리와가튼 번번치 못한 學究者가 民俗을 採取에지운結局 研究를 爲한 採取에지나지 못한것인데 그것을 象牙塔에서 民衆에게 내여준것은이번 大會가 아닐가합니다。

이제 변변치 못하나마 今番大會에 對한 몃마듸 感想을말해볼가합니다。그러나 勿論 蛇足의 感이 만흘듯한데 그것은 놀러 보아주십시요

언제든지 하는말이지마는 朝鮮에도 演劇이잇고 舞踊이잇다는것을 一般은 기괴感銘하엿슬것이외다。

또 이演劇과舞踊의 文化遺產이 반드시 現代에도 容納性이잇다는것도 斷定하엿슬것이외다。

이번에는 時間關係로 오른演出도한 山臺都監노리만 하더래도 演劇上으로 보아 얼마던지 그將來性이 잇는것을 보여주엇슬줄밋습니다。다만 楊州山臺도 이제는 衰勢를 나타내지 안이하나합니다。李健慎老는 아직 老丈에 偶然한다다만은 後生는 先輩에 떠러진이 만허서 이로 춤이 좀더 衰頹하지안흐면 自滅의 길을 밟지안흘가 걱정입니다。

꼭두노리는 아직 이것을 모르는사람에게 그무엇임을 보여줌에 지나지 못하지나안핫나합니다。그노리와 달라서 演出時間이 긴것을 短縮하니 無理도잇겟지마는 人形操作에 原始하야 지못함이 同一座를 爲하야 哀惜히 생각합니다。우리偶人劇은 世界偶人劇史上으로도 最古部類에 屬할것이며 此하야 新奇 興味잇는 正反對現象을 우리 觀衆이나 또는 偶人이 다시 再吟味할 必要가 잇슬가합니다。二十五日 이번에 人形劇(꼭두각시)을 六面으로 한것은 대단 성적이 생각하엿스며 容量 平人形(Hand Puppets)으로 처음試驗한것이 재미잇섯습니다。

결궁패는 近來에 드물게 興味잇게 보앗는데 이舞踊은 朝鮮舞踊의 舞踊系統上으로 재미잇는 存在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열두발상모도 대단조왓습니다 다를 쓰자면 一座의 중요 劇가不足하지나 아니한가합니다 그러나 勸農하로 조와섯스며 衣裝도 相當히 考慮한點이 잇섯고 또 방고의 리즘이 리한 舞踊이 缺點을 補足하엿슬것입니다。

鳳山의 假面舞踊及演劇은 昨年 朝鮮民俗學會의 第一回鄕土舞踊民謠大會때에 이미 試驗한것이니 새삼스레 무어라아니하겟습니다마는 朝鮮의 鄕土藝術의 白眉로 世界的水準에 到達하얏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가 합니다 다만 今年에 처음본 李滿春氏가 不參한것이 遺憾이나 그繼承者도 그다지 遜色은 업섯다고보앗습니다 時間關係로 科場短縮도 哀惜합니다。또獅子의 面을 今年부터 寫實的으로 한것은 조흐나 갈기털을 朱로한것은 좀생각할 問題가 아닌가 생각햇습니다。

以上을 通해서 말할것은 이 모든것이 時代呼吸에 뒤떠러진 感이 不無한데 이것은 當者들에게도 말하엿거니와 반드시 周到한 用意下에서 再吟味 再出發할 必要가 잇슬것갓습니다。

결궁패의 움즉이는 繪畫的要素

史畵家 李如星

먼저 貴社의 劃期的壯擧에 敬意를 表합니다。나는 전에도이 탈춤을 한번 구경한일이 잇스나 또한번 보아두지안흘수가업서 구경왓습니다。

우리 그림그리는사람 더구나 나와가티 歷史畵를 그리는 사람은 발을벗고 달려가야할 조흔 材料와 香氣가 가득한것이니까요。

그중에서 무엇이 제일조트냐구요?글세—다조치만 봉산탈춤과 결궁패의 어떤場面은 그대로 한번 畵幅에 옴겨보고십흔 熱心이 나드군요。그리케 아름답고 선명한 포—즈는 눌 畵家의 敬虔한食慾을 동하게합니다

歷史的價値를 띄고 純興行的으로 볼때는 어떠냐구요?그야 줄타는것 땅재조 盲人才談가튼것은 다훌륭한 興行갑이지요그러나 이民俗藝術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야 마지안는것은 亦是 이것이 오랜옛날 우리祖上때부터 傳해내려오든 춤이요노릇이랏데 우리도 이것을 잘간수햇다가 우리子孫에게 넘기는것이 유일한이란는데 더큰意義가 잇슬줄압니다。

그러데 우리舞臺의 衣裝을 볼 그衣裝의 色彩에 神經을 쓰게되는데 너무 野卑한 原色은아주쥐색이에요。그야 옛날엔 原色밧게 쓸줄을 몰랏스니까 이제와서 우리가 마대로 곳칠수는 업스나 가튼 原色이면서도 좀더 調和되게 할수도 잇는게퍼………。

이야로 永遠히 우리 子孫에게 물려줄 선물이라면 좀더 잣구어서 보다며는 아름다움이 잇서야 할겝니다。

그러데 한가지 기면하엿이잇습디다그려。거 舞臺우에 奉든 布帳엔 웨 삿갓을—통가 그리 만흔가요?더구나 앞에첫는 막(幕)쪽엔 웨사이유 宣傳아메뻬水를 그렷스니…에—춋춋 이담에 만일 드이런일이 잇거든 좀더 眼目잇는분에게 附託해서 舞臺裝飾가든것을 햇스면합니다。

어쨋든 무척 조왓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그感激한 힘든興奮 직하야 마지안습니다。

希臘의古劇가튼 우리假面舞踊

劇作家 柳致眞

이번에 보고서 제일 기뻣것은 꼭두각시와 산대도감과 鳳山탈춤이엿습니다。이전에도 흐북것이잇고 또 조각는일을 도로것도 잇지마는 이번에 보고나니 果然 우리 演劇遺產으로서 採取할마한것이 만햇습니다 더구나 꼭두각시 人形劇으로볼수잇는데 人形의 製作이나 操縱이 外國것에 比해서도 조금도 遜色이업슬줄로압니다。이번에는 操縱하는사람들이 좀 서투러보이는것갓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오래동안 廢햇든 것을 갑작이 하자니까 그러케된것일줄압니다 何如間 全體的으로보아서 外國것만 못하지안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이러한것을 土臺로해서 거기에조금 더 테크닉을 加味하면 아주훌륭한것이될줄로 想像할수잇습니다

그리고 山臺도감은 며—마가 좀 缺一이되지안흘것갓기도 합디다마는 아마 一定한臺本이잇는것이아니고 口傳으로 내려오니 그리캣지요마는 거기에 좀더 知的으로 補充을하면 조치안흘까합니다。저는 이번에 山台도감을 보고서 옛날 希臘의 野外劇場에서 햇다는 假面劇을 聯想햇습니다。그리고 山台都監의 喜劇가 再形式的인것은 그 假面과 劇和가 잘되어서 非現實的인美하면서도 歌舞伎의 様式的舞劇와가티 너무 非現實的이지도 아니한데 妙味가 잇습디다。이러한點은 現代劇의 喜劇가너무도 現實的이어서 도리혀 素樸한 늣김이잇는 世界的事實에비추어본다면 크게注目해야할點이 아닌가합니다。

더구나 鳳山탈춤은 그形式이 活潑하고 스피—드가잇고 線이 굵고 뚜렷한點으로 보아서 確實히 世界的水準에 노피 솟은것인줄로압니다。

대개 우리춤이라면 宮廷에서 發達한것이만큼 悠長하고 纖細해서 조으롬이 오는것 가튼데 이鳳山탈춤은 그것과 아주 反對로서 우리의 宮廷藝術이 纖弱한反面에 우리의 民俗舞踊은 이러케도 씩씩하고 活潑하고 壯健한것이라는것을 아주잘알수가잇섯습니다。

결궁의어느一瞬間動作 最高의아람다운포—즈

彫刻家 金復鎭

民俗演藝大會를 구경한 所感을 이야기하란구요?글세요。그저 조왓습니다고 여쭈어야 人事말솜이될텐데 좀 그리치가 못해서원……率直히 말슴드리면 期待보다는 못햇습니다。

그도그럴거서 지금 우리의藝術을 鑑賞하는 눈은 훨신노파젓고 그民俗노리 自體는 오히려 옛날 山과흙을 背景으로하고 흙냄새 구수한 논두렁 밧고랑을 舞臺로하야 뛰놀든 그때그時節보다는 훨신 退色하고 싱거워젓스니 그두사이에 距離란실노 까마아득한것이안입니까

그야 이것이 우리의 祖上님네가 하든 노리요 작난이 니하면 웨 所重하고 보배로운생각이 업겟습니까。그저 더퍼노코 절이라도하라면 넙제할것가튼 感激이야 만치요。

그중에서 어느것이 제일滋味잇섯느냐구요?아모래도 鳳山탈춤을 제일노 들어야할겝니다。그것은 그럭저럭 修正만해노코보면 한개의 舞踊劇으로 꽤쓰겟드군요。

그런데 그것도 템포가 어찌느린지 그리고 舞臺的訓練이전혀업는 탓이랄가 새이새이 切斷이되고—그래도 조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勸農패가눈에 버엿는데 그패의 웨 童妓들이 나오는게 잇지안어요?그 童妓들이 팔을 이러—케 들라고하는 그瞬間의 포—즈、몸뚱팔을 完全히 든다음엔 벌서解放이되여서 재미적습니다—그것은 무척 아름다운것이엿고또 내가 만일 彫刻에 옴기고시픈것이 잇섯다면 亦是 이場面이엿습니다。

어쨋든 이압흐로 이民俗노리가 만흔 專門家의 손을 빌어서 좀더 洗練되고 美化하기를 바람뿐입니다。

歷史的遺產인 우리民俗藝術

語文學者 李熙昇

이번에는 貴社에서도 全力을 다드려서 行한일인만큼 그만큼 絕大의 成果를 어든것이줄로압니다마는 何如間 이만큼 豪華스러운 우리 民俗藝術이 더구나 京城市內에서 一時에 보게되엿다는것은 진실로 歷史的壯擧이라고아니할수업습니다。

그래서 조타 나쁘다하는생각보담도 이번機會에 제일 切實히 느낀것은 우리가 傳承해가지고온는 이리케 조흔 民俗藝術을 어떠케햇스면 永久히 保全할수잇슬까하는것이엿습니다。

가령 社會的으로 무슨 機關이라도잇서서 이것을 將來로維持하고 또 發展식힐 그리한方法을 좀 講究햇스면합니다。

그런데 첫재 鳳山탈춤가튼것을 봅시다。勿論 舞踊으로 볼때는 비록 洗練되지안흔점도업지안치마는 그것보담도 이것을 한개의 農民樂으로 볼때 그純朴性이라는것은 무엇으로도 비길수업는것입니다。더구나 그춤을출때 動作가튼것을보면 정히 힘과 熱 그것입니다。그리한點은 우리가 敬意를表하지아니할수업는것입니다。

그리고 봉산탈춤이나 山대도감이나 춤以外에 才談이라는것이잇지안습니까?그것은 春香傳가튼데서도 보이는 것이지마는 그內容이 우리 古代文學과 一脈相通하는데가잇습니다。가령春香傳이나 탈춤이나 또는 山대도감에 나오는 才談이라는것은 讀者나 觀衆에게 厭症이 나지안케 一種의 유모어—를 加味한것이라고 볼수잇습니다。

(사진설명 上右부터鳳山탈춤、결궁패、꼭두각시、山臺도감)

新刊評

盧子泳近著 人生案內讀後感

朴英熙

春城 盧子泳氏의 近著인『人生案內』의 아름다운 書籍한卷을바덧다。그리하야 나는이冊을 읽고 그讀後에 이冊에對한 感想을 쓰게되엿다。

春城도 文友로서 사귄지『白潮』時代부터라고할수잇다。그러나同一한文章世界에서도그主張과文體가 너무도相異해서이때것 春城의 許多한 著書에 關해서 늘 默過하고말엇다。

그러므로 春城의 著作에關해서 感想을 쓰는것은 이것이 나로서는 처음이다。

그때의 그는 軟文學의 第一人者이엿다。그러데 나는 軟文學을 極히 反對하는사람이엿스며 至今도 또한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한까닭에 이번 春城이보내준 이 아름다운 冊子에對해서도먼저나는 春城의文學에 對한 態度를 차즈려고하엿다。春城은 여러해동안 身病으로 文壇과는 아주 이저버렷다가 이제更生의 第一書인까닭에더욱이 나의 注意를 끄럿든것이다。

그文章과 內容은 예전의그것과는 아조 相異하다。아러케 말하면 失禮일는지 모르나 放蕩한要素는 다업서지고 그情熱과 哀傷과 傷心이남을뿐이다。

靜寂한雰圍氣가 文章에서 떠돌고잇다。人生을 가장주觀한 表面에서차지려고 努力하엿다 이제 春城의 이 새로운 出發로서 그는 文學의 퍼다더 深奧한 境地를 차즐줄로안다。感受性이 銳敏한文章 美麗한 語句、輕快한構想은 新緣을對하는것도가티 淸快하다。

더욱이 이著書는 紀行、隨筆、評論等을 모흔것이니、紀行文과 隨筆에 長點을 가즌 氏인만치 이冊은 氏의 全貌를 볼수잇스며 또한 그의努作인것을 確實히 알수잇는것이다。이冊은『人生案內』라기보다도『文學案內』라고할만치 그評論에 잇서서도 親切히解說한바가만타。

文學을 조아하는사람의 机頭에 놓혀노하도 조흔冊이다。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 永昌書館 振替京城六三三一番 定價一冊壹圓五十錢。送料十二錢

K—186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에 효과가낫타나는 약이니 림상치료에는 물론이요 자택에서도 단시일안에 손쉽게근치되는약입니다

림질의 고통은 한번 알어본사람이아니면 모른다는말과가티 그고통과 불쾌한심상은 참으로 말할수업는것이다 사람의인정으로 전염된 당서에는 고통과 번민에 못이겨 허둥지둥하시다가 만성고질(慢性痼疾)이되야 좀 고통이 개이면 치료를등한히 하시는수가 만호나 그해독은 참으로큰것입니다。첫째로 자기신세가 대하게되며 둘제로 집안사람께 전염을시켜서 무서운부인병을 알케만들며 더한층 나가서는 우리조선의 민족전강을 해롭게하는것입니다。즉 화색을 일케되며 원기가업서지고 속히 늙거져서 인생의향락의길을 충분이맛보지못하게되니 어찌 조선사람으로 해어난이상 자기 집안을위하야 아니 자기민족의발전을위하야 전강에넘치는 일군이되서야 할것아닙니가。그러므로 남의약을 억설로 욕하는바가 아니오나 약만은 조혼것으로 치료하시는것이 속함으로 그로써●환자의한분이라도 속히병고에서 버서나시기를 바라는본사가『림질근치약은겐고—루뿐이다』라고 고창하며 추천하는바이오니 조곰도 주저마시고 본제로 치료하시사 속히 근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의 림질약의 무능력과 위험성

흔히 사용되고있는 내복약(內服藥)은 약한기운으로 하부에작용하며 반듯이위장에고장을 이르키며 농균이 절대로없서 근치가못되고 잃지적 안정 혹은 잠복을시켜서 늘 재발하게만드는것입니다。만일 림균이 죽을만한약을 석그면 위장이 녹아버리며 오줌이안나오게될것입니다。그러므로 내복약의 환약、가루약、물약、더구나한약의 탕약종류는 모도 오줌을 잘나오게하거나 아픔을 덜하게하고 뇨도가 매키지안케하는 예방에지내지못한것이 새로운 설로 확실히 증명되는바입니다。그외일반 주입 세척약(洗滌藥)은 익숙한 의사이외에는 림균을 속으로 집어너홀위험성이만허서 일반자택치료에는 적당치못합니다 또한 열을 우형인부 또는 피부외로부터 주어 림균을 죽인다는열기료법등은 그런결로어찌 조직심부의림균이 죽으며 홍접이 생긴철박이 다 리치가 잇겟습니가! 림질을 만성고질이 되시기전에 속히 근치하실 여러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 하로바삐『겐고—루』로 치료하시사 전래의기쁨을 어더주시기바랍니다

淋疾治療의進步史 불공新禱治療부터 局所療法까지

세라—博士 림질치료사 에서

림질의원인이 불명하야치료하지못하엿든시대에는 불공기도를하며 혹은는고름을 짜내거나빨아내고 요도를 절결하기위하야 오줌수를 만히먹게되엿스며 의식적으로는 리요제(利尿劑)를 사용치는안엇습니다。

급성림질 때의 발통으로인한 고통에는 무당등이 악마진퇴의기도를올리며 숫처녀와동침하면 낫는다하야 병독을 무수히 전파시키는시대도 잇섯스니 지금에잇서서도 미개사회에서는역시이런것을 실행하고잇습니다

내복약 백당유(白檀油)등의 희발성油가 림질치료에사용되게된것은 열대지방의미개인의발견으로 예전부터 사용되여잇섯스나 지금의 소위 문명인사이에서도 사용되고잇슴은 우수운현상입니다 내복약이 위장과신장에 유해하다함을 일직부터 알리워왓스나 一九〇〇年代에 독일의『쉬라인』과『와렌진』兩博士가『白檀油』가튼 내복약을 연복하는 患者의 오줌속에잇는 림균은 죽어버리지안는것이다」고 내복약으로는 균을 사멸시키지못한다는 종내와다른 학설을 학계에 후부터 의학계에서도 내복약에 절망하고 局所療法연구에 전렴을다하여왓든것입니다

국소료법의 발전 국소료법은 일세기전 리코—드氏가 발명한것으로 초산은(硝酸銀)을 즉접 뇨도에 넷든것이엿스나 이것에는 여러가지로 장해가 만코 공회상반한까닭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방법을 쓰지안엇습니다。一八九七年에 나이셀氏가 림균을『고노코쿠스』을 발견한이후 푸로타—골을 창제한것이 즉 현대림질치료법의 기초가되여 이로부터 세척법(洗滌法)과 주입법(注入法)등이 고안되엿스며 그다음에 주색(朱色)으로는 색소(色素)료법이 생겻습니다면 결국은 가장합리적인국소료법이 제일 유력한치료법으로 전문의가의 의견도 일치되엿고 국소약의연구발달에 만흔 기대를 가지게되엿섯습니다 더구나 미개인의 발견하엿다는 내복약 역시 문명파하여나흔 국소약에 도타여 정복을 맛고마른것입니다

003062

급성인분이나 만성된분이나 → 겐고—루로 二重殺菌을하시면

곳根治됩니다

이시세에 맛당한 튼튼한 일군이되실여러분 어찌 아직까지도 림질을 등한히하시고 쓰라린세월을 보내시고계십니까。

그원인은 모두가 여러분께잇습니다 즉 적당한치료법으로 곳치시지안코 잃지적 안정제로 치료하시랴합니다。여러분께서는

內服藥으로 치료를하시는분이 만호나 권하잇는 최신학설과가티 먹는약으로는 절대로 뇨도조직(속병화근)에파뭇처잇는 림균은 죽지안흠으로 근치가못되는것을 모르시고 장복을하시고게시나 늘再發되고 잇지안습니까!

그것은 약기운이 위장을 경유하야 얼마안되는약기운이 오줌에석겨서 그곳에 작용하는때문에 그러케 낫지안는것입니다

醫藥學이 발달되지안흔시대에는 허는수업시 써왓스나 현금에 이르러서는 보조제로바게쓰지안습니다 그러면 어떠케하여야 조흐냐하면

專門醫學博士에가서 진찰을 바드시거나 혹은自宅에서라도 독가튼효과를 어들수잇는 의사전문약인 二重殺菌療法의『부랑오銀겐고—루』로치료하시면 손쉽게 안전부작용의 염려업시 단시일안에 근치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사람몸은살어잇는 그 미묘한 정을 강구해서 재래의 국소약의실패 즉 단일성능으로는 역시 낫지는안흠으로 二重殺菌을하여서 병균과 그균탈미와아 생긴 고장을 모조리다스려주는 二重性能을 가지고잇는때문에 그림케百發百中으로 림질환자를 救援하고 잇는바입니다

속히 병고에서버서나시사 튼튼한 일군이되실 여러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 엇뜩한조섭과함께 하로바삐 겐고—루의 二重殺菌療法을 실행하시사 근치의기쁨을 어더주시며 널리선전하시사 同病者도 구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급성도 만성도 二重殺菌을 하야만낫는다

먹는약으로는 절대로 근치가못되는 림질도『부랑오銀겐고—루』의 二重殺菌療法으로 치료하면 단시일안에 百發百中으로 근치되오니그리우는 림질의병화근이 남며 국부의 뇨도조직에 병균이활동하고잇는 때문이니 그곳을도려빼나듯이 적확한 약기운으로 치료하면 곳根治되는것은 정확한 리치가 아니겟습니가 더구나 재래의 치료제는 모도가 단일성능(單一性能)이엿섯는데『겐고—루는』二重으로 작용케되므로 더욱 유효하오니 속히병고에서 버서나실 여러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서『부랑오銀겐고—루』로 치료하시사 근치의기쁨을 어더주시요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림질근치약『부랑오銀겐고—루』의 약가는 各號(一號二號남자용 三號부인용)가 갓습(同一)하오나 보통약…一圓九十錢、十七日分…三圓八十錢의구입이 잇사오며 본점에서는자에 한하야 송료사실례성을 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東京市芝區濱松町一ノ十三 (振替東京三五〇一九)

○총지하시는대로 림질자택치료서를 거저드립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겐고—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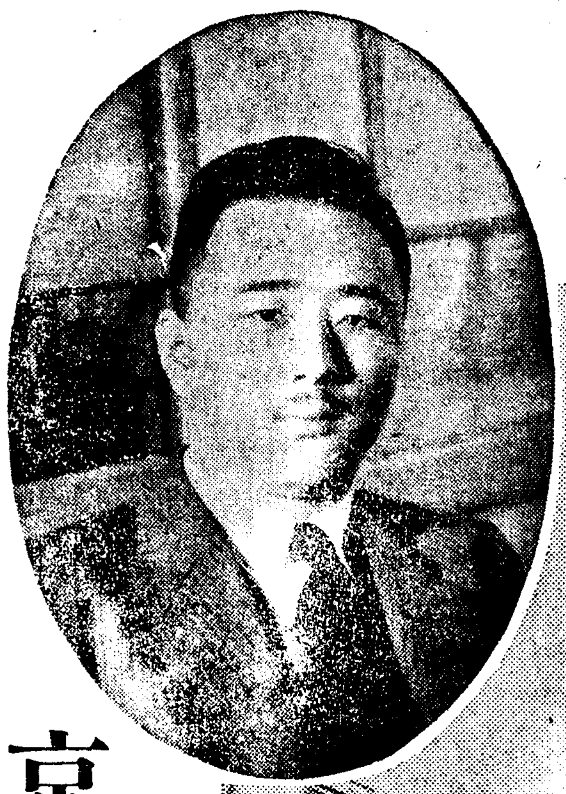
림질근치약 부랑오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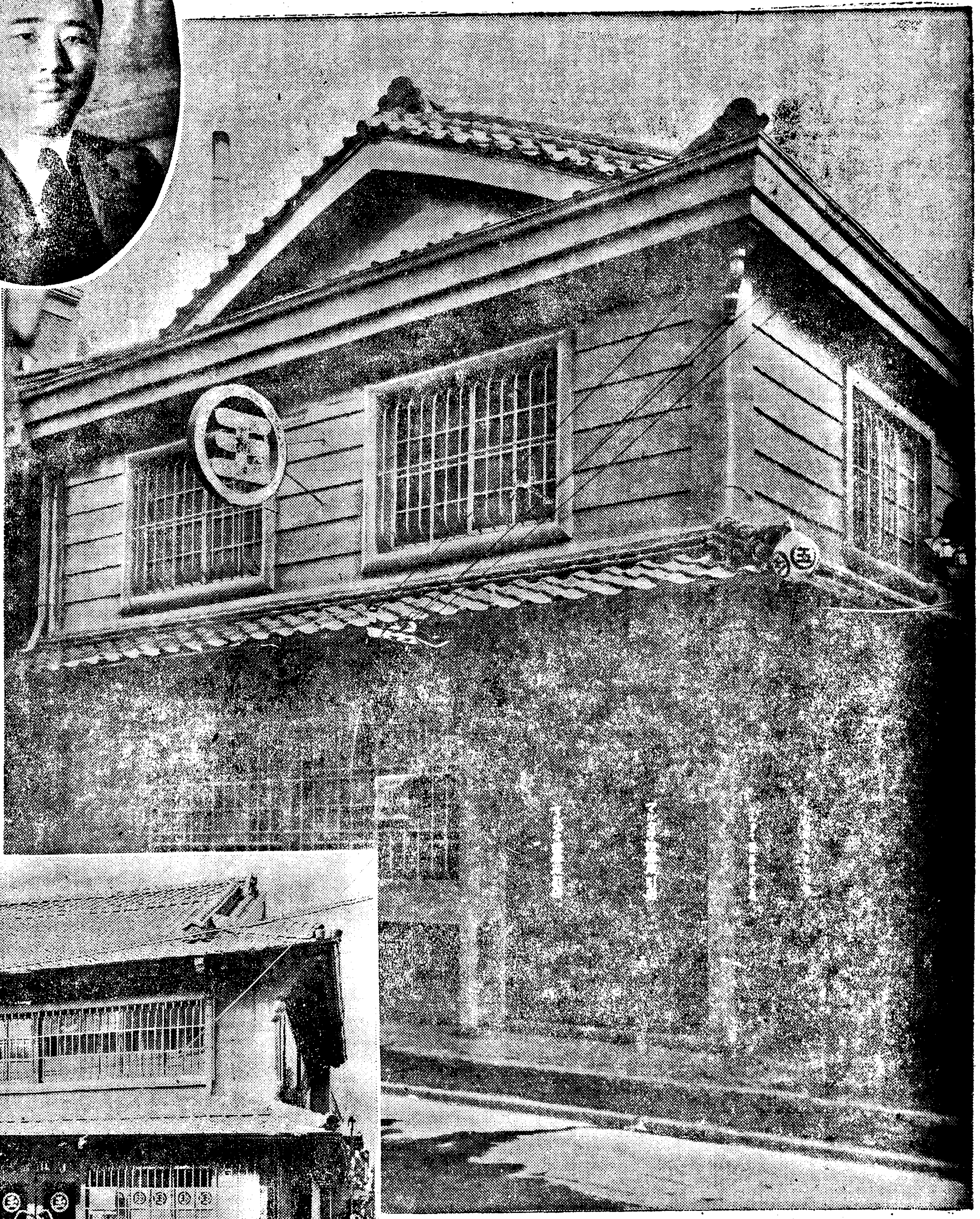
祝 朝鮮特産品展

朝鮮取引所證券米豆取引員

マルタマ㊄取引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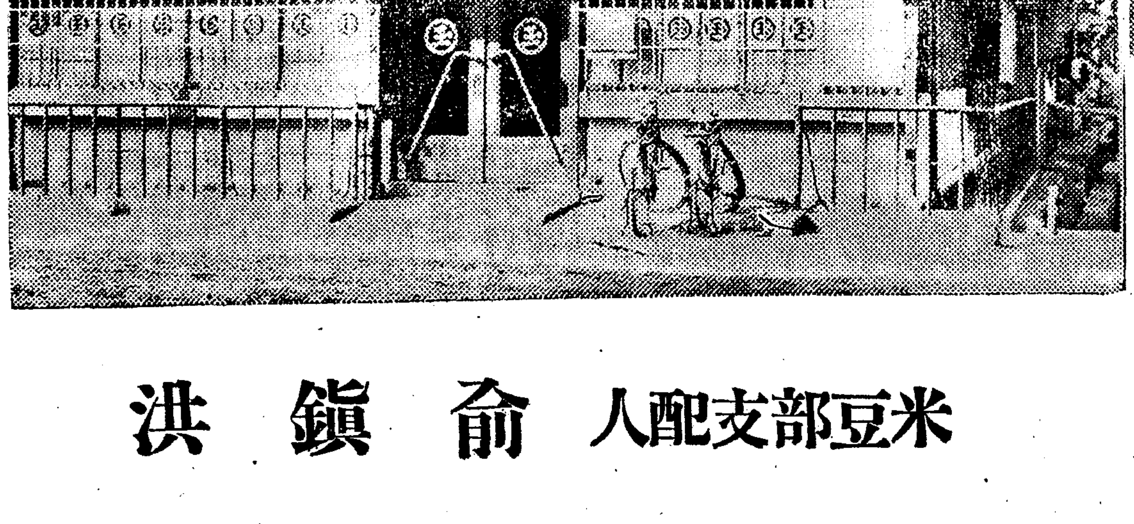
總支配人　鄭運得





京城證券部
代表電話②二六〇一番

證券部支配人　韓健植



仁川米豆部
代表電話七三三一番

米豆部支配人　兪鎭洪

取引銀行

京城
朝鮮殖産銀行
漢城銀行
朝鮮商業銀行

仁川
商銀仁川支店
殖銀仁川支店

綿絲配給組合은 指定商人만有利

平壤中心으로業者聯盟結成

生活權擁護에邁進

【平壤支社發】면사통제문제의 여파로면사배급외에 미끄러진 평양공업계 심장부(心臟部)의 영향을미치고잇는 양말동업조합(洋襪同業組合)에서는 면사배급을 받지못한다면 유십여처공장경영자와 직공들합하여 무려이만여명의 사활문제화하게될것을 간파하고 각요로당국에 탄원하여 ... 공동전선(共同戰線)을 취하자는 격문을 발송하는등 ... 면사배급통제조합(綿絲配給組合)의 결정까지 보앗섯스나 ... 지정상인(指定商人)의배급을 만드러노핫다는 ...

結核患者의樂園

海州救世療養院

創立十年記念式

救世病院、懿昌小學、母兒會紀念式도兼行

七日부터三日間擧行

【海州】현대사회에잇서서 여러가지문제중에도 번지럽이 가장 국세고사망률(死亡率)이 노푼바잇서 소위망국적질병이라는 폐결핵(肺結核)의 퇴치기판으로 서전조선에 오직하나인재단법인해주구세료양원(海州救世療養院)에서는 그에부여된 사명이 사회적공기성을 가진것이라 창립이래 사회적여론과 기대에 보조를 마추어 폐결핵퇴치운동에 매진하여 빗나는 공적을 ... 창립십주년에 해당하므로 오는 ... 창립기념식을 거행할터이다 ...

◀療養院十週年記念禮拜　五月八日午前十一時부터

◀紀念音樂會　同日 午後二時부터

◀紀念家族園遊會　五月九日午前十時 神光寺에서

◀海州救世病院二十週年記念式　五月七日午前九時부터

◀海州母兒會十週年記念式　同日 午前十時부터

◀海州懿昌普通小學校卅五週年記念式　同日 午前十一時부터

◀海州救世療養院十週年記念式　同日 午後二時부터

◀十週年記念晩餐會

私立海星小學 九日開校式擧行

【全北支社發】전주해성 심상소학교에서는 오월구일 오전십시부터 개교식을 거행하기로되엿다는바 동교는 전주「카톨릭」공유지교도(敎徒)의 진력에의하야 빈곤아동교육을 목적으로소화오년 사설학술강습소로개설되야 이래 팔개년간 교육사업에 ...

人夫一名卽死

平北鐵道工事場서

【新義州】지난삼일오후 여섯시 ... 평북철도공사(平北鐵道工事)에서 일하든 ...

新町火災는 放火로判明

【慶北支社發】기보=사일오전영시삼분경 대구부내신정(新町)의 ...

倉庫係와商人結托

二千餘圓을橫領

新義州署에四名檢束

【新義州】부외마전동(麻田洞)모 (某)회사의 창고계원과 부내에 잇는 거상간에 물품횡령을 둘러싸고 부정사건이 련속되어잇는것을 신의주서에서 탐지하야 ...

消費節約運動

各課分擔決定

【慶北支社發】경북도청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하의 소비절약운동에 ...

◀會計課 一、官廳用紙의節約 ...

◀山林課 一、카소린節約 ...

꽃진牧丹峰에 青年飮毒自殺

【平壤支社發】꽃진모란봉은 ...

潤葉稚樹保護

【晋州】진주군에서는 녹비채취기(綠肥採取期)에들어가 ...

特産으로첫손곱던

黃紙는骨董品化 ⑤

옛날엔唯一한上納品

長篇小說

林巨正 【96】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소굴 (六十四)

「내일이 도둑놈의기집이 되다니 그년이 아비어미의 원수 ...」

五月特大號今日再版

五十錢 一三千里社 各支社 ...

文藝時評……金基鎭

李王家財産二億圓說

無情……朴基園

長安美人記

上海상각 尹致昊氏執筆

機密室

重要人物安否記

復活!!

★俞吉濬의生涯……俞億兼

★日露戰爭과 舊韓國政府……林權助

宋鎭禹其後

反宗敎批判……韓龍雲

讀書雜記……崔奎東

愛國詩人만눈치오

나의 東京美術學校時代……羅蕙錫

思想客轉向

國境의共產匪等現狀

崔南善氏의 新京가는心境

戰時特報

島山臨終記

女流文士戀愛問題會議　毛允淑　盧天命　李善熙　崔貞熙

長安富豪財産調査表

朝鮮浪人論……金明植

怪傑 千萬長者崔昌學

天下三關娘子關

中原進擊陣中記

每日申報百萬圓內容

半島大金鑛探訪記

總督會見記

北京政府訪問記……韓相龍

戰時議會와余의演說……朴春琴

總督府朝鮮人高官人物評

平壤陷落

上海假政府解散과其他半島諸事件回想記

協和會와朝鮮民衆……金璟載

創刊十年辭

經濟 朝鮮 說

總動員法發動
平時規定과 工業動員解剖

去般七十三議會에서 成立된 國家總動員法의 一部가 五日부터 內鮮一齊히 施行되엿는데 이는 正히 同法發効의 發動이다。「國家總動員」이라는것은 「戰時又는 이에 準할事變(今日과가튼)에 際하야 國防目的을 達成키 爲하야 國의全力을 가장 有効適切히 發揮할수잇도록 人的及 物的資源을 統制運用함」을 指稱하는것이다。

그러나 本法은 世人이 危惧하는것가티 國民의 權利 生殺與奪의 權 一切를 剝奪하는 것은 絶對로아니다。從하야 本法이 公布施行되엿다고 全文五十條에 亘한 効力이 一齊히 發動하는것이 아니오 때의 必要에 依하야 必要한 條項만이 施行適用되는것이다 이것이 本法이 他一般法律과 相異한 特點이다 그럼으로 本法에는 各條項마다 「勅令의 定한바에依하야」라는 條文이 잇서 各條는 大綱規定만에 止하고 細目에 亘한 規定은 모두 其條項發動의 境遇에 一一히 施行勅令을 發布하야 實際的 効果를 期케되어잇다 今回 本法의 一部가 施行된 理由도 이러한 立場에 基한것이다。

今回施行條項

今回施行될 條項은 大體어 同法中의 「平時規定」이 大半이오 「戰時規定」으로는 겨우 軍需工業動員法關係의 規定이잇슬뿐이다 또 이것은 第一條로부터 第三條까지의 定義規定 即 前述과가튼 國家總動員 그것에 對한 定義及 左와가튼 總動員의 物資와 業務의 範圍規定

一、物資=兵器、艦艇、彈藥其他軍用物資(總動員上必要한 被服、食糧、飲料、飼料、衛生材料家畜衛生用物資、其他衛生用物資、車輛、馬其他의輸送物資、通信用物資、土木建築用物資、照明用物資、燃料、電力、以上의生產、修理、配給又는 保存에 要하는原料、材料、機械器具、裝置其他物資

一、業務=右物資의生產、修理、配給、輸出入又는 保管에 關係의業務、總動員上必要한 運輸、通信、金融、衛生、家畜衛生、救護、教育、訓練、試驗研究、情報若은 啓發宣傳、警備에 關한 業務(右以外의 物資及業務라도 必要하면 勅令으로써 指定함)를 비롯하야 第十三條(戰時又는 事變에 際하야 工場事業場、船舶、土地、家屋等의 管理、使用、收用을 行하는 規定)와 同條文에는

一、政府는 戰時에 際하야 國家總動員上必要가 잇다고 할 時는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總動員業務인 事業에 關한 工場事業場又는 船舶의 全部或은 一部를 管理、使用 또는 收用할수잇슴 이 境遇에 其從業者를 供用케하고 또는 當該工場에 잇서 現在 使用하는 特許發明或은 登錄實用新案을 實施할수잇슴

一、政府는 前項에 揭한것에 잇서 使用又는 收用하는 物件은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其從業者를 供用케하고 또는 當該 物資를 使用할수잇슴

一、政府는 戰時에 際하야 國家總動員上必要가 잇다고 할 時는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總動員業務인 事業에 屬하는 工場事業場又는 土地、家屋其他의 工作物을 管理、使用又는 收用할수잇슴

이라는것이 規定되어잇슴으로 今次 事變勃發以來 軍需工業動員法及 이것을 支那事變에 適用하는 法律에 依하야 現在 實施하고잇는 「軍需工業의 一部管理」는 今回當然 此十三條의 發動에 依하야 適用되고 同時에 右工業動員法及 支那事變適用法은 總動員法附則에 明記된바에 依하야 廢止된다 實際上 此十三條만 施行하면

現在의 軍需工業一部管理도 當然同條에 依하야 繼續的으로 施行된다 其外 何等業務이 아니다 以上에 따르는 第廿一條(國民登錄規定)의 發動이다。

第廿一條 政府는 國家總動員上 必要할 時는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帝國臣民及 帝國臣民을 雇傭하는者 或은 使用하는者로 하여금 帝國臣民의 職業能力에 關한 事項을 申告케하고 又는 帝國臣民의 職業能力에 關하야 檢査할수잇슴

即 戰時에 國民의 徵用(徵發)을 實施하고 勞務의 需給調整을 圖하기 爲하야 平時부터 國民의 職業、技術等을 登錄하야두는 必要上 國民에게 此等의 事項을 申告케하고 또 當該官吏에게 國民의 檢査를 行케하야 一朝有事의 際에 備하려는 國民徵用의 目的을 達할수잇도록하야두자는 規定이다

「技術者養成」에 關한 第廿二條의 規定도 今回 發動될것을 看過할수 업다。

第廿二條 政府는 國家總動員上 必要할時는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學校、養成所、工場、事業場又는 技術者養成에 適當한 施設의 管理者 又는 養成되는 者에 對하야 試驗硏究又는 技能者의 養成에 關하야 必要한 命令을 할수잇슴

第廿四條 政府는 國家總動員上 必要가 잇슬때는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總動員物資의 生產、販賣又는 輸入을 業으로하는 者에게 一定數量의 其物資又는 其原料 或은 材料의 保有를 命할수잇슴

第廿五條 政府는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總動員物資의 生產又는 修理를 業으로하는 者에게 事業計畫을 設定케하고 其計畫의 實施에 關하야 必要한 命令을 할수잇슴

第廿六條 政府는 國家總動員上 必要가 잇슬때는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總動員物資의 生產又는 修理를 業으로 하는 者에게 其一定事業에 對하야 命令을 할수잇슴

第廿七條 政府는 國家總動員上 必要가 잇슬때는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總動員業務의 事業主 又는 試驗硏究機關의 管理者에게 總動員業務上 必要한 試驗硏究를 命令할수잇슴 又는 必要한 補助를 할수잇슴

第卅一條 政府는 國家總動員上 必要가 잇슬때는 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 前條에 規定한 事項에 關하야 必要한 報告를 徵하고 또는 當該官吏로 하여금 必要한 場所에 臨檢케하야 業務의 狀況을 檢査할수잇슴

以上의 規定이 今回施行되는 八個條에 亘한 것이다 이것을 施行하는 主要理由는 軍需工業動員法과의 調整及 新發布되는 國家總動員審議會官制와 가티 本法施行의 準備에 잇는것이다。

地方景氣好況反映
市場賣買高新記錄
昨年末全朝鮮市場1513
總賣買高三億六千三百萬圓

總督府商工課調査에依하야보면 昭和十二年末現在 朝鮮市場規則에依한 市場總數는 一千五百十三個所에 賣買高三億六千三百五十二萬六千六百六十三圓二二로 前年에比하야 市場數는 六個所의 增加에不過하나 賣買高에 잇서서는 四千九百一萬八千七百八十一圓의 增加 即約一割五分의 增加로 實로施政以來의 新記錄으로 昨年의 物價高를 考慮한다 하드래도 各種生產의增加와 이에伴하는 地方景氣의 好況을如實히 反映하고잇다 其中一號市場(所謂在來市場)은 其數一千四百四十四 賣買高三億二千七百四十四萬九千二百十一圓 第二號市場(二十人以上의 營業者가 一場에서 主로 穀物、食料品의販賣業을 行하는場所)은 市場數二十一個所에 賣買高一千六百五十二萬六千六百十圓 第三號市場(委託을 바다販賣하는場所)은 市場數二十九個所의 賣買高는 一千九百三十七萬七千八百四十一圓이다

其取引種別을보면

農產物	一四〇、〇九九、二三三圓
水產物	四八、五三一、七三三圓
織物	四九、三三一、五九三圓
畜類	五九、五六八、三六〇圓
其他	六六、〇一九、一九〇圓
合計	三六三、五二六、六六三圓

으로各種을 通하야 從來에 보지못한 增加를 示하고잇다한다

手形交換減少

四月中의 京城手形交換所調査에依한 全朝鮮手形交換高는 二十三萬九千六百七枚 一億八千六百四十六萬三千四百二圓으로 前月에比하야 一萬五千十五枚 六百二十七萬三千四百四十六圓의各 減少를 示하얏다 (而年同期에比하면 增加)

信託勘定增加

朝鮮信託本店의四月末現在 信託勘定은如左하다(單位千圓)

金錢信託	三四、〇〇九	
有價證券信託	七、四九一	
不動產信託	一三、一三四	
其他	一〇、五四七	
合計	六四、三一〇	

前月末에比하야 二百四十萬六千二百二圓의增加이다

市場數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京城 今年四月 前年同期比增減

	今年四月	比前年同期增減
京城	三一、四三五	七、四三五
仁川	七、八六六	▲一、三三五
釜山	三三、三三二	三、三三三
平壤	一四、三三六	四三五
元山	三、三三三	▲一〇四
大邱	三、三三六	▲二〇三
木浦	三、三〇四	三三五
群山	七、三三〇	三、三三六
鎭南浦	三、八三六	▲一六〇
合計	一六八、八三七	三、八三七

對內地貿易膨脹
出超九百八十八萬圓

總督府調査에依한 鮮對內地貿易概算額을보면 四月中 朝鮮에잇서서 今年의 移出은 六千八百四十七萬二千圓을 前年同月 四千八百九十七萬六千圓에 比하면 一千九百四十九萬五千圓의增이며 今年一月以降累計 二億八千五百四萬六千圓에 比하면 一億四千四百十四萬四千圓을 前年同期의 一億二千三百十九萬八千圓의 增을示하고잇다

그리고 移入을보면 今年의七千五百三十九萬圓을 前年同月의 六千二百六十三萬三千圓에 比하야 一千二百七十五萬七千圓의增이요 어쨋도 一月以降累計로보면 今年의二億五千一百二十六萬圓을 前年同期의 二億三千百九十九萬八千圓에 比較하야 二千三十六萬四千圓의 增加를보이고잇다 그리고 移出入超過을보면 今年四月의 九百九十一萬八千圓의 入超에比하면 六十五萬六千圓의 入超에 比하면 六百七十二萬八千圓의 入超減을 示하고잇는데이를 前年同期는 四千二百九十五萬一千圓의入超이엿슴에反하야 本年은九百八十八萬二千圓의 出超이다 肥料百廿四萬四千圓 乾海苔七十七萬四千圓의順으로 增加를보이고잇스며 硬化油大豆等은 減少되고잇는데 綿織物一百卅四萬八千圓을首位로 木材、紙類等은 移入品中에 顯著히增加한者

그런데 移出入重要品의 前年同月에比하야 增減額이 顯著한것을 摘記하면 移出品中 米의一千二百五十五萬五千圓을 비롯

移入防止코저
綿賣價協定

朝鮮製綿業者는 從來의 自由競爭으로 營業政策을 放棄하야 既報와가티 朝鮮製綿業組合을 結成함에 이르러 理事長에 『오多組』綿會社、副理事長에 朝鮮製綿會社外에 理事二名을 推擧하야 半島의 製綿事業의 强化에 進出하게되엿다 그리고 當面의 問題로서 標準綿의 最低價格을 協調를 保持하게되여 內地의 五圓六十錢에 對하야 五圓三十錢을 嚴守하야 內地로부터의 移入을 防止하고 또同業者間에自由競爭의 弊害를 除去하게되엿다 九州方面의 群小의 會社가 朝鮮內를 消費目標로 亂賣하므로 因하야 朝鮮內의 業者는 相當히 苦惱하여오든現實問題를 最低價의 協議로未然에 防止하려함에 엇는것이다 따라서 自由價格時代의 製炭金制度도 當然撤廢하야 價格協定을 嚴守하며 『루ー즈』 하기쉬운 取引問題에 對하야서도 業者間에는 時局上 現金取引을 主張하는者가 만하나 結局中小業者이 金融狀態도 考慮하야 現金取引制度에의 前提로서의 延取引은 三十日限度를 採用하게되엿다한다

金融不透明
預金貸出모다減少
◇…四月末京城組銀狀況

四月三十日現在 京城組合銀行帳面은 預金二億六百八十五萬九千圓으로 四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四百九十萬九千圓減少、前年同期에 比하야 六千四百二十五萬九千圓의 增加이엇다

貸出은 二億五千七百七十九萬四千圓으로 四月十五日 現在에 比하야 百十六萬六千圓의減少、前年同期에 比하야 四千二百三十萬九千圓의 增加이다

即이가티 四月末에 預金貸出이 十五日現在보다 모다 減少된것은 金融 不透明을 反映한 것으로서 이제 預金貸出의 種別比較는如左하다 (單位千圓)

◇預金

	四月卅日	比前年同期增加
定期	一〇六、一三四	四〇、七三三
當座	三八、九九八	九、〇三三
特當	三三、六三四	四、三五三
通知	一四、六〇四	六、〇六八
諸預	一三、三五九	三、七三四
合計	二〇六、八五九	六四、二五九

◇貸出

	四月卅日	比前年同期增加
證書	二〇、四七〇	一、四二六
手形貸	一九六、四五八	三八、四〇〇
當座貸	二一、五〇二	三三三
割手	一三、三三八	一、七三一
荷爲替	四、〇三一	三七九
合計	二五七、七九四	四二、三〇九

證券所持激增

遊資가만허 허덕이는 京城組合銀行의四月末現在 有價證券所持高는 …

銅使用制限强化
銑鐵鑄物製造制限
殖產局長談發表

事變勃發以來銅의 需要는急激히 增加하엿는데 國內의自給力은 極히貧弱하기때문에 輸入의增大에依存치 안흘수업섯스므로 昨年十一月朝鮮總督府令第百八十號로써 銅의使用制限에關한 件을 發布하야 建築物의집웅、庇、樋、煙突又는 排氣筒에 銅을 使用하는것을 原則으로 禁止하고極力 消費節約에 努力해왓스나 最近益益銅의 需要는增加하야 銅飢饉의聲을 듯게되엿스므로 本月六日附府令第九十三號로써 前記府令을 改正하고 使用制限의 徹底强化를期하야 其需給의 調整을 圖하려는것이나 右改正內容의 大略을 說明하면

一、使用制限은銅及 銅合金에미처 銅合金이라는것은黃銅(眞鍮)、靑銅、砲金、洋銀(洋白)、赤銅을말함

二、建築物의桿、扉、窓格子、手摺、階段滑止又는 日除金具로서 銅又는 銅合金을 使用하려는者는 道知事의許可를要함

三、百瓩未滿의銅을旺及이에附屬하는種에 使用하는境遇는 許可를 要치아니하나 今回其制限을 廢止함

四、飲食用器具、廚房用器具、衣類用의器具、家具付屬、美術裝飾品、被服附屬金具、喫煙用器具、裝身用品、裝身具、文房具、建築用附屬金具、玩具、屛風標具、스토ー부、샨데리야、電氣스탠드、金庫、書類箱、冷藏庫、看板、네임푸레이트、廣告用文字其他一般家庭用金物及雜貨又는其部分品의 製造에 銅又는銅合金을 使用하는境遇는 道知事의 許可를要함

五、前項에든 物品又는 其部分品으로서 輸出品又는 其部分品이아닌것의 原料又는 材料를製造하는境遇에 잇서서 銅又는 銅合金을 使用하는境遇는道知事의 許可를要함

六、四項에든物品이輸出品인時는 其製造에 道知事의 許可를要함

輸出用으로서 製造된 物品은 道知事에게 屆出할것을要하고 또 미리 一定事項을 道知事에게 申出하야 許可를 要하는 境遇에 잇서서도 勿論一般需要者에 잇서서도 制限의 趣旨를 了解하야 國策遂行에 協力하여주기를 바라는바이다

이것을 製造하는者는 勿論이것을 讓受한者도 原則으로 이를國內消費向으로 販賣함을不得함

또銑鐵에 對하야서도 軍需에 對한 供給을 確保할必要가 잇는것과 軍需關係產業의 生產力을 擴充키爲하야 機械用鑄物의 需要가 激增하야 增加의 傾向에 잇스므로一般日用品類의 鑄物을極力節約하야 前記의 需要에 支障이 업도록할必要가잇서 銑鐵鑄物의 製造制限에關한 府令이 發布되여 五月十五日부터 施行케 되엿다

軍需品、輸出品其他 特別事情에 依하야 不得已한것은 道知事의 許可를 受하야 製造할수잇는 것인데 鑄物製造者는 勿論 一般需要者에 잇서서도 制限의 趣旨를 了解하야 國策遂行에 協力하여주기를 바라는바이다

輸入發註前
財務局에協議必要

輸出入品의 臨時措置法等의制定에依하야 內外地가다 國際收支의均衡을圖하야 長期戰對策을 講究하고잇는바 其完璧을 期하는意味에잇서서 今回總督府에서는 個个朝鮮에直接物資를 輸入하려고하는 境遇는 그것이官廳이나 또는輸入業者이나를 不問하고 모다 其發注前에 財務局長과 協議하여야 한다는旨를 五日付로써 總督府各局部課長 第一次 所屬官署長及 關係各署에 通牒하엿다한다

이요 棉花、人絹織物、生고무等은減少한것이다

○食糧協會總會=全國食糧協會總會는 六、七兩日間 東京工業俱樂部에서開催 米倉의 石塚社長 福田群山支店長等出席

今日의市勢 (六日)

株式 買氣滋生 反高

前場少堅 賣買雙方의 積極行動回避와 環境不透明으로市勢는連日保合을 繼續할뿐이어서 今朝寄付도 平凡하엿고 그後少堅味를 呈하기는 하엿스나 伸力도高것이어서 閑散保合으로推移되다가 止際에는 買物이 增加하야 少强裡에 東新百四十四圓九 鐘紡二百四十九圓九에 大引

後場續高 後場은 寄付한後 鐘紡은 二百五十三圓으로 오르고 東新도 百六十六圓臺를 回復하엿다

動機待裡底强

近間 張群이 來渡하야 和平工作을하고잇다는 報道도잇스나 그傳하는條件으로나 또는 四圍의情勢로보아 和平이 既成立될可能性은 업다고보아도 過言이아니오 張群의 新政府入說도 아직 그眞相을알길이업스며 使張群의 新政府入이 實現하드라도 長期戰에는 變함이업슬것이라고보아 아직 이것을根據로 買하고저하는 人氣는動치안코 氣迷예陷한채 決擇된市場은 材料가出現하기까지는 上下面大變動을보일것이나 보지안코 어대로 賣進키도難하야 市勢는 暫時橫으로 子달거리며 局面轉換을 기다릴밧게업서되엿스나 大體로 賣買는 商談의 多하다 엇을것으로는

賣餘地도疑問

相當한 惡材料로 買할 手數料도 안일이다 한그래도 거의 없을 賣物이 나오지아니할 物價抑制니하는 統制强化가 하엿스나 長期戰이니 貯蓄獎勵니 物價抑制니하는 統制强化等의 惡材에 그대로 殘存하야 그의 影響을 一時에 消化키어려운데 觀念을 一時的으로 局面轉換을 圖할수 업는터이나 買方大口側은 거이 綜落城되엿스므로 이것으로 惡

期米 一低後에 再騰

前場反落 今朝는雨天으로 阪地初付 三十四圓八十錢인 一丁反高를 據하고 當은賣買不成中은 二圓十錢인 昨日同價으로 先限은 三十三圓 三十三錢인 一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八十錢五番同價로 六節七十七錢의小落을 伴하야 二十錢까지 下押하엿다가 阪地八十錢의返戻와相俟하야 七節二十六錢으로 結局阪止八十錢을 보고 二十八錢에 止場하다

後場堅調 後場은 三十二圓三十六錢인 八丁高로 始場한後 三三節 三十六錢으로 四節三十九錢 五節三十八錢으로 堅强하엿다

旱餘에甘雨來

朝鮮의天候는 四十日동안이나 旱天을 繼續하야 麥作의悲觀과 播種水의 不足으로 旱魃가擡頭하야 米界에莫大한 影響을與하야 더니 昨今數日來의 天候가憂天又는 霧雨等으로 不良을 繼續하더니 結局昨午後부터 順雨를 獨來하기始作하야 今朝六時까지의 雨量이相當할뿐아니라 麥의成長에도 多大한 蘇生을見하게될것이오 播種에도 水不足의 憂慮를 足히 解消하고도 남음

市場六感

◇株…今朝에는 少堅裡에 移되어 底强味를 보엿스나 依然賣人氣에 伸力은 遲遲◆時別한 材料出現까지는 俄然한活躍은 또한期待難이나◆惡氣流속에서 賣叩하다가 賣叩못한市勢라 어대로 賣進도 困難◆더구나 大口買方總潰落에 取組는 實超過의現象이니 이反動도 豪勢◆現實로보아 賣餘地업는 市勢라면 乃終에低落이잇다라도 暫을反展가順序付로 ◆그러하고 지금부터 高價飛躍을 ◆東新百五十三圓이면 다 고

◇米…昨夜의豪雨야말로 可謂一滴千金◆麥의凶作으로 良作으로轉換할지도모르고 播種도 이에잇서서는 可謂知時節이라할 수잇는걸◆그래서 市勢도 不拘하고 當地는 三期共히 一場反落◆그러고 米의實需에잇서서도 아직 이러타할만한惡材料가업스니 買安心하다고 賣手도업는時期 ◆五月一日現在米數字가 一派 減少說、內地는增加說 果然何說이 當할는지◆

비오자市勢弱

昨夜의豪雨는 農家의 愁眉를 解消하야 農家의 蘇生의 雨라할만큼 雨量이 相當하야 麥作에는 播種의 水不足을 解消하게되엿다고 하야 시장은 오히려 하락 市況은 그好響을 받아 十數丁의 反落을 呈하엿다 ... 然反落을 示하엿다 어쨋 天候가 左右될는지알수업서 當日의 大勢가 左右될모양이다

(各地雨量) 六時까지의 各地雨量은 左記와 如하다

▲中江鎭 三미리 ▲新義州 四三미리 ▲仁川 二八미리 ▲京城三三미리 ▲全州 一七미리 ▲木浦 三四미리 ▲釜山 三四미리 ▲大邱 一七미리 ▲新義州 一미리 ▲平壤 五七미리 ▲元山 一二미리

國債上向

(東京電話)同盟通信 阪地의 報告는 株式自體內의 事情을 如實히 말하고잇는듯하야 朝鮮의 證券보다 好轉하엿다 仁川觀測 下値는 寂寞할것으로보는 老鍊側 一部의 所說도 參考로 傾聽할 必要가잇다고하였다

國債는 前日來五分半을 中心으로 買人氣가 되엿는데 今朝하야 甲號二回五分이 十錢高上도 三十錢上進되엿다 五錢高이며 米貨五分半 ▲甲號四分一〇二、三五 ▲一回四分一〇一、一〇 ▲二十三年物 九八、五五 佛貨四分一九七、二〇

受渡規定改正

朝取에서는 先般米穀取引所業務規定中의 受渡規定에 全般的 改正을 施하야 當局에認可申請中이든바 四月末 認可되엿스므로 七月限부터 實施하게되엿다 그改正의 要點은

一、品位受渡의擴張
二、渡米와受米代金提供期限延長 及 渡米提供猶豫制
三、格下檢查의變更
四、格上檢查의規定廢止
五、審查受渡際의 改裝料査定의 實際化
六、容器品의 審查請求를 擴重케하기爲하야 倉出費用을增額
七、代用調達難의 境遇에잇서서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正米

釜山外는 續强

京城昂進 內拜가 多少잇고 當用側의 原料手當關係로 極하야 地廻은 又復二〇錢續騰하고 米도 이에 追隨하야 잘賣付되어 市價五錢 乃至 一〇錢昂進되엿는데 慈雨到來에 依한 奧地側動向에 深甚한 注意를하고잇다 ㊀三等三一、五〇 四等 三一、三〇 一等白米 三一、一五

仁川續堅 正米는 定期보담 三四十錢割低에 잇스며 產地의 頑强과 相俟하야 正米로 부터 朝寄的으로 買募되어 昨日보담 다시 五錢高로 多少賣가 成立되엿다 ㊀穀良 三等 三一、五〇 四等三一、二〇 銀坊主 三一、一七 四等三一、五〇 多摩錦 三等三一、〇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 四一、三五 ㊀二、三一〇

釜山下押 新規賣物皆無로 賣人氣旺盛하야 市價十錢下押하야 軟調이엇다 ㊀穀良三等 三一、三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 一三、一七

大邱保合 浮動米一掃에因한 奧地大農側의 强硬으로依然賣物은 稀薄을 告하야 此邊狀이다 市場唱價도 多少의 賣行에 따라 底堅保合이다 ㊀穀良 三等 三一、六〇 四等 一、四〇 一等白米 一三、一〇

群山奔騰 大勢硬化에 遂行하야 奧地는 依然 蹈腰을 繼하야 內地로부터 入注殺到하나 低價인듯한 品이나 市中은 殆然 成行으로 化하야 三、四、五月의 朝鮮內消費狀況과 北支展開事의 激況으로 警方이 殘存米를 重視하고 買方에 多大한 割安을 買하야 常用筋이 精米商의 猛烈買로 市價十錢 乃至 二十錢의 奔騰을 示하엿다 ㊀穀坊主三等 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 一二、九〇

木浦伸暢 市中正米는 依然採算一本으로 요지음 殺到하는 內地照會도 內地의 低價狙擊과 成步와 價位不適으로 移出側의 買意는 頑硬하게된反面에 精米側의 手當은 意外로 旺盛하나 此邊의 實物은 相當히 出現하야 各地期米高도 雨上雨待로 結局 前日同價로 伸暢이엇다 ㊀三等 三一、〇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今日財界大日

◆米 (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大阪期米先限	三三、三〇	九高
仁川期米先限	三三、四〇	一〇高
京城正米 (三等米一石)	三三、五〇	五高
白米(一等)	一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石	一一、〇〇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朝取新	七二、〇	一
東新	一六六、〇	二〇高
鐘紡	二五二、〇	一高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大阪綿絲	二六、〇	
人絹	一〇、〇	
砂糖	一三、〇	

海外經濟 五日

銀行券 五日

金利·手形交換

鐵油粕·麥粉

對外爲替

金銀價

正米 正租

雜穀

滿洲商況

綿絲布

株式 朝取短期

期米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二二六

朝取 益 金益證券 京城黃金町二

京城物價 (六日)

砂糖 生絲 人絹 棉花 綿絲